

19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

- 무크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김 경 연**

차 례

- | | |
|----------------------------|-------------------------|
| 1. 무크지의 출몰, 정치의 귀환 | 4. 대안적 비평의 모색 - ‘변증법적 비 |
| 2. 제3세대의 등장과 『지평』·『전망』의 탄생 | 평’, ‘비평의 비평’ |
| 3. 방법으로서의 ‘지방주의’ 혹은 ‘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 ‘이차적 저항’으 |
| 른 보편’의 상상 | 로의 이행 |

국문초록

이 글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1980년대 부산의 무크지운동이 추동한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을 독해한다. 1980년대 부산에는 『지평』(1983), 『전망』(1984), 『토박이』(1987), 『문학과실천』(1987), 『문학과 현실』(1989) 등 다양한 무크지들이 출현하는데, 이들 무크지는 80년대 한국의 폭력적 정치상황에 저항하는 의식투쟁의 거처가 된 동시에 지역에 대한 성찰을 촉발하고 지형학적 상상력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 편

* 이 논문은 2019년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좋은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부산대학교 교수

향의 권위주의적 문학체제에 대항하는 문화투쟁의 거점이 되었다. 특히 『지평』과 『전망』은 부산 무크지운동의 기원이자 정치문화적 헤게모니의 반성적 해체를 수행하면서 실천적 전략으로 ‘지방문학운동’을 견인한 전위적 매체이다. “지방문학의 활로 개척”, “문학의 지방주의”, “지방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한국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 등의 가치를 내걸고 편파적인 문학제도에 대한 대타의식과 지역을 재전유하고 지역/문학을 재발명하려는 의지를 선명히 한 부산의 무크운동은 문학의 민주화와 지방차지적 문화의 형성을 주장한 80년대 여타 지역 무크지들의 지향과 비교해서도 단연 강렬했다. 이러한 부산발 지역문학운동의 중심에 『지평』과 『전망』이 있었으며, 보편/특수에 잠재된 권력관계를 적시하고 보편으로 군림해온 ‘서울지역문학’을 적발하면서 부산지역문학의 주변성을 극복하고 보편/특수의 위계적 구조를 ‘복수 보편’의 평등한 체제로 재편하려는 문화정치적 기획의 중심에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있었다. 이 글은 1980년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부산의 무크운동이 기획한 방법으로서의 ‘지역주의’를 재독하고, 특히 지역문학운동을 견인했던 『지평』과 『전망』의 비평적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1980년대 부산발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을 탐사하고자 했다.

주제어 : 1980년대, 무크지, 부산, 『지평』, 『전망』, 지방주의, 지역문학운동, 변증법적 비평, 비평의 비평

정치는 틈에 존재한다.¹⁾

- 자크 랑시에르

1)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3, 33쪽.

지방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한국 민족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²⁾

- 『지평』

1. 무크지의 출몰, 정치의 귀환

1980년대를 독해한 어느 문학사는 80년대를 ‘다양성이 쇠퇴하고 미학적 불균형’이 초래된 시대로 적시하고, 이러한 문학의 침체를 유발한 원인으로 비평을 지목한 바 있다. “급진교조적 운동논리”에 지지된 비평의 위세에 압도돼 80년대 문학은 “정치적 편향성과 탈문학화”의 길로 나아갔으며, 선동적인 비평/이념의 압력에 다양성이 말살된 “80년대적인 것”은 90년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 퇴거당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³⁾

헌데 80년대를 통과한 문학주체들의 발화 속에서 우리는 주류문학사가 적발한 이 낯익은 ‘80년대적인 것’, 곧 문학의 정상성을 이탈한 불온한 그것과는 전혀 이질적인 ‘80년대적인 것’과 조우하게 된다. 80년대를 실체험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80년대는 “그전 시기의 문학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난감할 정도의 특이한 모습”의 ‘문학들’이 출현하고 “문학에 대한 기왕의 상식들이 심각히 도전”⁴⁾을 받았으며, “세대적 목계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그 다양성이 하나의 가능성”이 된 비평의 백가쟁명 시대였고, 문학의 정형 혹은 주류가 부재하는 “불확정성·부정형성·불확실성의 모색의 도정”⁵⁾이었다는 것이다. 90년대적 시좌에서 기술된 문학사가 가공한 ‘80년대적인 것’과 80년대 문학주체들이 발신/

2) 『지평』 2를 대신하면서, 『지평』 2집, 부산문예사, 1983.

3)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민중·민족문학의 양상-1970,80년대의 문학』, 『새민족문학사강좌 2』, 창비, 2009, 368쪽.

4) 김도연, 『장르 확산을 위하여』, 『80년대 대표평론선 1』, 지양사, 1985, 243쪽.

5) 구모룡, 『변증법적 비평을 위하여』,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8, 16쪽, 23쪽.

기억하는 ‘80년대적인 것’의 이 간극이야말로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80년대적인 것에 대한 “신화와 선입견을 벗어”⁶⁾나 과학적인 재독이 필요한 방증이지 아닐까. “80년대에 대한 ‘이미 전제된 이해/해석(先理解)’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에테르’가 난무하고 있”⁷⁾던 80년대의 의미를 탐문해야 한다거나, “급격하고 자유주의적인 ‘청산’을 특징으로 했던 ‘90년대적 지평’”이 아닌 “‘탈 90년대적’ 방식으로 80년대 문학·문화에 대해 평가”⁸⁾해야 한다는 최근의 지적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존의 문학제도 안에 수렴될 수 없는 이질적 힘들’이 출몰했던 80년대 문학을 단지 ‘탈문학화’가 아닌 “다른 문학”⁹⁾의 도래로, “다양한 문학적 스펙트럼을 펼쳐보였”던 80년대를 “단일한 ‘민중문학의 시대’”가 아닌 “문학 자체의 변화와 삶 혹은 사회의 변화”¹⁰⁾에 대한 열망을 추구했던 예외적인 시대로 달리 읽어야 한다는 요청인 것이다.

삶/사회와 문학의 변혁을 함께 수행하고자 했던 이 비상한 80년대를 추동한 미디어는 다름 아닌 무크지였다. 잡지와 단행본을 결합한 ‘부정 기간행물(MOOK)’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실천문학』이 출간된 이래 80년대는 “‘무크시대’ 또는 ‘무크운동’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될 정도”¹¹⁾로 수다한 무크지가 출현했고, 이 신종 미디어는 80년대를 계간지가 주도했던 “70년대와 갈라놓은 문제적 매체”¹²⁾로 부상했다. 70년대와 변별되는

6)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399쪽.

7) 김원,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 『한국학연구』 제3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15쪽.

8) 천정환, 앞의 글, 395-396쪽.

9)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제37호, 한국시학회, 2013, 86쪽.

10) 김정환·이인성·강동호, 『80년대 문학운동의 맥락 2-다시, 80년대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문학과사회』 32(1), 2019, 186쪽.

11)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창작과비평사, 1984, 13쪽.

‘80년대적 현상’으로서의 무크지는 1980년 7월 언론기본법을 통해 『창작과비평』(이하 『창비』)·『문학과지성』(이하 『문지』) 등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등록 취소한 국가권력에 맞서 “암흑기로 떨어질 뻔했던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해 준 동시에,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소통구조와 비대증적인 동인지 성격의 한계”¹³⁾를 지닌 양대 계간지 중심의 문단체제 혹은 문학제도에 대한 도전과 해체를 촉발한 매체로 평가되기도 한다. 무크지가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이처럼 문화적 민주주의를 추동한 정황은 무크시대의 출발을 알린 『실천문학』이 계간지시대의 종언 이전에 기획되었다는 사실에서 간취되기도 한다. 기실 『실천문학』은 주요 계간지가 강제 폐간되기 전인 1979년에 이미 계획되었고 1980년 3월에 출간되었을 뿐 아니라, 창간사를 통해서는 “민중의 최전선에서 새 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겠다고 천명했는가 하면, “기성문단의 틀 속에 안주”하지 않는 “새 문학인의 출현”¹⁴⁾을 요청하기도 했다. 때문에 무크지를 일종의 “변칙적 출판활동”이며 “무한정 지속되어도 곤란한”¹⁵⁾ 과도기적 문화운동으로 간주하려는 기성의 시각에 대해 당시 무크운동의 주체들은 무크가 단지 계간지의 부재를 메우는 “서류적 산물이나 기회주의적 대체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능동적인 문화전략”¹⁶⁾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앞선 세대의 문학·문화 체제를 계승하기보다 이처럼 문학의 재발명 혹은 문화의 민주화를 강하게 의욕했던 80년대 무크운동에서 단연 주목되는 사건은 ‘지방문화운동’¹⁷⁾이다. 원재길에 따르면 70년대까지 문학

12) 김준오, 『무크운동의 장르관-80년대 무크』,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379쪽.

13) 박태순·이명원, 『소설가 박태순에게 들어보는 1980년대와 『실천문학』, 그리고 문학운동』, 『실천문학』 105호, 2012, 106쪽.

14) 『실천문학』 제1권, 전예원, 1980.

15) 백낙청, 앞의 글, 13쪽.

16) 황국명, 『80년대 소집단운동의 전략과 그 의식지평』, 『전망』 4집, 도서출판 지평사, 1986, 11-45쪽.

매체의 발간이 서울에 편중되었던 것과 달리 80년대는 문학 무크지 절반이 지역에서 발간되었고,¹⁸⁾ 이들 매체는 70년대 『창비』나 『문지』와 같은 계간지들이 하지 못했던 “지방적인 특색을 가미하고 나름대로의 기반에 충실한 새로운 각도의 문화운동”¹⁹⁾을 적극 실천했다. 때문에 80년대 지역의 문학주체들은 80년대 문학사에는 “무크지를 통한 소집단운동,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방문학의 활기”²⁰⁾가 기록될 것이라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논자의 지적처럼 “80년대를 무크지 시대로 호명만 하고 그것의 내부/세부에 관해서는 무심”²¹⁾했던 문학사에서 80년대 ‘지방문화운동’은 대부분 간과되거나 온전히 평가받지 못했다. 『마산문화』(마산), 『삶의 문학』(대전), 『민족과 문학』(광주), 『지평』(부산) 등 80년대 지역 무크지를 다시 조명하고 이들 매체가 발동한 지역문화운동의 실질을 탐사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학사의 결여에 착목한 논의로 보인다.²²⁾ 80년대 부산의 대표적 무크지 『지평』과 『전

17) 이 글에서는 1980년대 당시 『지평』과 『전망』에서 통용되던 용어로 표현할 경우 작은따옴표(“)를 사용해 ‘지방주의’ ‘지방문화운동’ 등으로 표기하며, 그 외에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구모룡은 『지역문학운동의 과제와 방향』(1986)에서 “지방이라는 자기 비하가 담긴 용어 대신에 가치중립적인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천명했는데, 『지평』 역시 5집(1986)을 전후해서는 ‘지방’이 아닌 ‘지역’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18) 원재길, 「80년대 문학 종합 무크지의 실태」, 『문학예술』 통권124호, 1989 참조.

19) 김정환·박명윤·이은봉·하영권,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실천문학』 4호, 1984, 256쪽.

20) 「머리말」, 『전망』 4집, 9쪽.

21) 김문주, 앞의 글, 89-90쪽.

22) 80년대 지역 무크운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로는 김대성, 「제도 혹은 정상화와 지역문학의 역학-‘피난문단’과 ‘무크지 시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김문주, 「무크지 출현의 배경과 맥락-『마산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학회, 2014; 임세진, 「문학(성)의 민주화와 민중 언어의 실천-대전지역 무크지 『삶의 문학』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9집, 겨레어문학회, 2017; 이동순, 「1980년대 광주 지역문예운동의 특수성」, 『상허학보』 52집, 상허학회, 2018; 임세진,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 『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

망』에 주목하고 이들 매체가 기획한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을 독해 하려는 이 글 역시 지역의 무크운동을 망각해왔던 문학사를 성찰하고 “지역마다 방향성을 갖고 전개되었”²³⁾던 무크운동의 복수성을 정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1980년대 부산에는 『지평』(1983), 『전망』(1984), 『토박이』(1984), 『문학과 실천』(1987), 『문학과 현실』(1989) 등 다양한 무크지들이 등장하는데,²⁴⁾ 특히 『지평』과 『전망』은 부산의 무크지 운동의 기원이자 지역문학운동을 추동한 전위적 매체로 역할을 한다. “지방문학의 활로 개척”, “지방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한국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²⁵⁾ 등의 가치를 내걸고 서울 편향의 문화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역과 지역문학을 재발명하고자 했던 『지평』과 『전망』의 무크운동은 문화의 지방자치화를 모색했던 여타의 지역 무크지들과 비교해서도 단연 강렬했다. 이 같은 부산발 지역문학운동, 혹은 서울/지방, 보편/특수의 위계적 문학구도를 재편하려는 문화정치적 기획의 중심에 『지평』과 『전망』의 ‘비평’이 있었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평이 중심체가 아니라면 무크라 할 수 없”으며,²⁶⁾ 80년대 무크가 융성할 수 있었던 유력한 이유는 “자체의 비평 이론을 확보”²⁷⁾한 때문이라 지적된 바 있듯이, 『지평』과 『전망』 역시 비평

으로, 『한국문학연구』 6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임시현, 「1980년대 광주지역 무크지의 실제」, 『한국언어문학』 99집, 한국언어문학회, 2016 등이 있다.

23) 이동순, 앞의 글, 148쪽.

24)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9-12쪽 참조. 이 중 문화종합무크지인 『토박이』의 경우 2호(1986)가 판금조치 된 이후 중단되었고 『문학과 실천』, 『문학과 현실』 등도 한두 차례의 발간에 그친 반면, 『지평』과 『전망』은 1990년대 초까지 발행되었다. 『지평』과 『전망』의 발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2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5) 「『지평』을 열면서」, 『지평』 1집, 부산문예사, 1983.

26) 김윤식, 「무크의 「지방성」에 대하여-「지평」 「전망」 「언어의 세계」, 『한국일보』, 1986. 3. 4.

이 “문학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주의”²⁸⁾를 위한 이론을 활발하게 제공하면서 지역문학운동을 적극 견인했다. 따라서 이 글은 『지평』과 『전망』의 비평을 중심으로 이들 매체가 탈구축한 ‘지방성’ 혹은 ‘지방주의’를 재독하고, 지역과 지역문학을 폭력적인 정치권력과 지배적인 문화권력에 불응하는 불화의 무대로 다시 정초하고자 했던 80년대 부산발 무크운동의 문화정치를 탐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지평』과 『전망』의 발간 과정과 이들 매체를 기획한 문학주체들의 세대적 혹은 지역적 자의식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제3세대의 등장과 『지평』·『전망』의 탄생

『지평』과 『전망』의 발간은 부산문단의 ‘제3세대’ 출현을 본격적으로 알린 사건이기도 했다. 1980년대 당시 『지평』의 동인이던 구모룡은 부산문단이 “크게 3세대의 단층으로 그 세대적 유분성을 지닌”다고 지적하며, 자신을 포함한 부산의 젊은 문학인들을 1세대 요산 김정한과 향과 이주홍, 이은 중간세대와 변별되는 ‘제3세대’로 규정한 바 있다.²⁹⁾ 대부분 1950년대에 출생한 당시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전후세대’로 주로 부산의 학계와 문단에 몸담고 80년대를 전후해 문학활동을 시작했던 이들 제3세대가 『지평』과 『전망』을 기획하고 부산의 무크운동을 이끈 주축이었다.³⁰⁾

27) 김준오, 앞의 글, 396쪽.

28) 민병욱, 『지방주의의 실체 1』, 『민주주의 지향과 문학』, 시로, 1985, 97쪽.

29) 구모룡, 『제3세대의 문학적 이념』, 『젊은 세대의 문학』, 시로, 1986, 69쪽.

30) 1980년대 주요 문학종합무크지를 조사한 원재길에 따르면, 『지평』의 경우 당시 편집동인의 평균 나이는 27세, 『전망』의 경우는 31세였다. (원재길, 앞의 글 참조) 실제로 『지평』 2집(1983)에 참여한 필자들 13명 중 8명, 『전망』 1집(1984)에 등재된 필자들 11명 중 9명이 1950년대에 출생한 이들이며, 대부분 1980년대 초에 등단한 이들이었다.

부산의 새로운 문학주체로 등장한 제3세대가 무크지를 창안한 데는 문화의 서울/중앙 독점구조에 대한 불만과 지역과 지역문학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게 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산 무크지의 출발을 알린 『지평』의 발간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방문학의 활로를 개척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983년 창간한 『지평』의 서문을 통해 편집진들은 “이 땅의 모든 문화는 오직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온 통념에 거부적 자세를 보이며,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서 독자적인 문화권 형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³¹⁾고 천명한다. 『지평』의 탄생을 이끈 주역이자 발간사를 쓰기도 했던 민병욱은 무크지를 창간한 배경에는 “당시 지역사회의 통념어가 되었던 ‘문화의 불모지 부산’에서 서울 해바라기를 하”는 기성문인들과 “문학활동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부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라 슬회한 바 있다.³²⁾ 문화의 지역적 불평등 구조에 순응하거나 편승하려는 기성문인에 대한 불만과 지역문학 쇄신에 대한 의지가 무크운동을 시작한 유력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3세대가 기성문단을 비판하며 내보인 이러한 “지형학적 상상력”³³⁾은 비단 80년대 무크붐이 불러온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었다. 구모룡이 지적한 바 있듯이 임시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빌어 일거에 보편성의 자리에 올랐던 부산문학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다시 주변부로 후퇴하면서 “중심부적 보편성에 대한 대타의식”을 줄곧 잠재해 왔으며,³⁴⁾ 보편을 독점해온 중심부에 대한 이러한 극복 논리는 1970년대 후반을 통과하면

31) 「『지평』을 열면서」, 『지평』 1집.

32) 민병욱, 「민병욱 교수의 ‘다시 문학청년으로’ <8> 무크지 『지평』의 발간 전후上」, 웹진 『인저리타임』, 2018.2.19.

33)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3-4쪽. 황국명은 “행위 주체와 장소의 관계, 주체에 대한 지역공간의 영향, 주체의 장소와 타자의 장소 사이의 관계 등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을 “지형학적 의식 혹은 지리적 상상력”이라 명명하고, 1950년대 이후 부산지역 문예지를 이러한 “지형학적 상상력”의 산물로 설명한다.

34) 구모룡, 「부산문학비평사: 근대성의 경험」,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362-363쪽.

서 보다 참여해진다. 『실천문학』이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좌담에서 1984년 당시 무크지 『토박이』의 편집장이던 하영권은 부산에서 문화운동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이며, 처음에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었던 것이 급기야 부마항쟁으로 이어졌고, 이후 부림사건이나 미문화원방화사건 등의 촉매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부산과 타 도시와의 관계, 특히 지방과 서울의 관계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³⁵⁾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하영권이 언급한 70년대 중후반의 문화운동이란 ‘양서조합운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양서조합운동은 1978년 4월 결성된 ‘부산양서판매협동조합’(약칭 부산양협)이 양서의 보급, 곧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화운동이었다. 박정희 정권에 이은 신군부의 탄압으로 부산양협은 1979년 11월에 강제 해산되었으나 부마항쟁, 부림사건 등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로 이어지는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견인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양서조합운동은 지역에서 자생한 문화운동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유입된 민주화 인사나 부산 출신이면서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는 서울 유학생들의 역할이 큰 것이었는데, 하영권은 미문화원방화사건(1982)으로 부산의 문화운동이 일시적 공백기를 맞으면서 “서울의 운동권이 내려와서 끼친 영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인구 35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나름대로의 자치·자기독립적인 운동권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었고, 문화운동의 측면에서도 “부산 자체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35)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앞의 책, 247쪽.

36) 차성환, 『양서조합운동의 재조명 1』,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가을, 68-86쪽; 김선미,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363-396쪽; 정승안, 『19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과 부림사건의 현재적 의미』, 『항도부산』 40,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20, 77-101쪽 참조.

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자기비판”과 더불어 지역 “나름대로의 발표지면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³⁷⁾

하영권은 1970년대 후반 부산발 문화운동이 지닌 서울의존성에 대한 성찰이 80년대 초에 부상했다고 지적했지만, 기실 문화의 서울예속화에 대한 비판과 지역의 현장성/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은 70년대 중반 무렵부터 부산문단에서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문학매체는 부산문인협회에서 연간으로 발행하는 『부산문학』 정도였고, 그 외에는 소수의 협회 기관지나 동인지가 전부였으며, 이 역시 연간이나 부정기가 주종을 이루고 단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을 전후해 다수의 문학잡지들이 창간되고 종합문예지를 표방하는 계간도 기획되면서 부산문단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³⁸⁾ 주목할 점은 이들 신생 매체들이 내보인 지역문학에 대한 선명한 자의식이다. 가령 1974년 부산시인협회에서 간행한 사화집 『남부의 시』는 그 기획의도를 “이 지방 예술문화권의 주체성을 위하여 목마르게 구상해 본 것”³⁹⁾이라 피력했는가 하면, 1977년 창간한 『남부문학』은 발간사에서 “문학이 중앙 집권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 자치적 문인 배출의 기관으로서, 향토문화 육성의 광장으로서”⁴⁰⁾ 역할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한다. 『오늘의문학』(1977) 역시 “중앙 문학의 안이한 모방·이입”⁴¹⁾을 극복하고 세계문학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지방문화·지방문학’을 주제로 열린 좌담에서는 “지방마다의 강렬한 지방색이 있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특성을 찾아 표현하는 것”⁴²⁾을 문학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따

37)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247쪽.

38) 강인수, 『부산 소설문학사(70년대와 80년대)』, 『부산문학사』, 170-171쪽;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8-9쪽 참조.

39) 김준오, 『부산 시문학의 6·70년대』, 『부산문학사』, 77쪽.

40) 『창간사-남부문단의 종합문예지 지향』, 『남부문학』, 1977, 9쪽.

41) 김병규, 『창간사-세계문학에의 발돋움』, 『오늘의문학』, 1977, 4쪽.

42) 좌담 『지방·지방문화·지방문학』, 『오늘의문학』, 1977, 10쪽.

라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제3세대의 무크운동 혹은 지역문학운동은 비단 80년대의 정치문화적 상황이 촉발한 우발적 사건이라기보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문단에 내재했던 서울/중앙에 대한 대타의식과 특히 70년대 후반을 전후해 부산의 문학매체들이 가동했던 지형학적 상상력이 일정하게 접속한 것이라 가늠된다. 이는 무크지 『지평』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계기가 80년대 초의 계간지 폐간이나 무크지 부상이 아니라 한국문학과 지역문학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70년대 말 이래의 회합이었다는 민병욱의 회고에서도 간취된다.

민병욱에 따르면 『지평』에 대한 구상은 1978년 가을 그와 이윤택, 이정주 등 부산의 젊은 문학인들이 조우하면서 시작되었고, “한국문학과 부산지역 문학”⁴³⁾에 관해 의논하던 그들의 만남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1982년부터 무크 발간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⁴⁴⁾ 이 무렵 부산문단은 하영권이 언급했듯이 발표지면의 부족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다. 향토문화의 육성이나 지방문학의 부활을 촉구하면서 등장했던 70년대 중후반의 신생 문예지들 대다수가 2,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종간했고, 때문에 “350만 인구를 가진 제2도시 부산에서 아직까지 문학 월·계간지 한 권 없다는 부끄러움을 한으로 간직”⁴⁵⁾하고 있다고 『지평』의 주체들이 토로했듯이 80년대 초 부산문단은 매체의 부족 내지 부재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젊은 문학주체들에게 무크지는 획기적 대안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비단 정기간행물의 공백을 보충하는 차원을

43) 민병욱, 「민병욱 교수의 ‘다시 문학청년으로’ <8> 무크지 『지평』의 발간 전후上」, 웹진 『인저리타임』, 2018.2.19.

44) 최학림은 1980~2000년대까지 부산잡지사를 개관한 글에서 『지평』의 창간을 주도한 것이 ‘평론가 남송우와 <열린시>의 이윤택’이라 언급한 바 있다. (최학림, 「1980~2000년대 부산 문학잡지 풍경」, 『작가와사회』 통권74호, 2019년 봄, 108-110쪽) 『지평』이나 『전망』 등 80년대 부산의 무크지 **발간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들 매체에 관여했던 문학주체들의 기억을 통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5) 「『지평』을 열면서」, 『지평』 1집.

넘어 제도적 미디어를 초과/교란하는 변종으로서의 무크지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온전한 문학 월·계간지 한 권이 부재한 비정상성을 전복하려는 제3세대의 욕망과 부합하는 형식이었을 터다. 이렇듯 탈제도적 매체에 불온한 열망을 탑재하고 부산의 무크운동을 개시한 것이 『지평』이었다.

1983년 4월 1집 ‘VISION’을, 같은 해 10월 2집 ‘문학과 삶의 지평을 위하여’를 발표하면서 등장한 『지평』은 1991년 종간하기까지 총 10집을 발간한다. 동인과 필진 대부분은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등단한 신인과 소장학자들이었는데,⁴⁶⁾ 3집(1984)부터는 동인과 필진 구성에 변화를 보인다. 우선 1, 2집에 필진으로 참여했던 전문학자들이 대부분 탈락하며, 아울러 창간을 주도했던 평론가 민병욱, 남송우, 시인 이정주 등이 동인에서 이탈하게 된다. 3집의 서문에는 “2집 이후 3집을 발간하는 사이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민병욱은 이 고충이 구성원들 사이의 “지방문학운동의 성격과 방향성에 관한 대립”⁴⁷⁾ 때문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민병욱과 남송우가 빠진 대신 평론가 구모룡이 새로 합류하며, 시인 최영철, 조성래, 민병태 등 신인들이 동참하고, 그 외에도 박남철(서울), 안도현(전북), 배창환(대구) 등 부산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을 필진으로 발탁하면서 『지평』은 전국적 무크지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 무렵 『지평』은 세대나 등단 여부를 초월한 외연의 확대를 구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3집에 실린

46) 『지평』 1, 2집에 참여한 필자들은 ‘민병욱, 남송우, 하창수, 송희복(이상 비평), 이운택, 이정주, 오정환, 박청룡, 강영환, 하일(이상 시), 김광수, 김문홍, 신태범, 이린, 최화수, 조갑상(이상 소설), 김성언, 박정상, 김미라(이상 해외문학·학술)’이다. 이들 중 송희복, 하창수, 하일, 강영환, 조갑상은 2집부터 합류했다.

47) 민병욱, 『민병욱 교수의 ‘다시 문학청년으로’ <9> 무크지 『지평』의 발간 전후下』, 웹진 『인저리타임』, 2018.3.7. 민병욱은 『지평』의 분열이 한 신인의 시 게재 여부를 놓고 촉발되긴 했으나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지평』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잠재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며, 특히 지역문학운동의 성격과 방향성에 관한 자신과 이운택 사이의 대립이 첨예했기 때문이라고 술회한다.

‘원고모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땅의 새로운 문학운동의 일환으로 발간되고 있는 Mook誌”라고 매체의 정체성을 밝힌 다음 “지역, 연령, 기성, 신인을 불문하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변화를 시도했던 3집의 서문에는 처음으로 “김문홍, 이린, 신태범(소설), 강영환, 이윤택(시), 구모룡, 송희복, 하창수(평론), 김미라(해외문학)”를 편집동인으로 명기하기도 한다.

동인이나 필진의 재구성이 뚜렷했던 것이 3집이라면 5집에서는 장르의 재편이 두드러진다. 시, 소설, 평론, 희곡, 번역, 논문 등을 망라하는 종합문예지 형식을 취했던 『지평』은 ‘지평의 시인들’, ‘작가특집’, ‘새로운 시인들’, ‘80년대 시인들’, ‘판시’ 등으로 구성된 5집(1986)이나 ‘부산·경남 지역의 젊은 시인 34인’의 작품을 수록한 6집(1987)에 오면 ‘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5, 6집을 분기로 시가 주도하는 무크지로 전향하면서 간취되는 것은 ‘비평’의 약화이다. 기실 발간 초기 『지평』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은 비평의 부상이었다. 『지평』은 민병욱과 남송우 등이 창간을 견인했을 뿐 아니라 하창수, 송희복, 구모룡 등 신진 비평가들을 꾸준히 발탁했고, 아울러 이들이 대개 초창기 『지평』의 편집을 맡으면서 비평 부문을 강화했다. 예컨대 1집에서 평론을 전면 배제한 데 이어 2집에서는 ‘주제비평’을 기획하고 ‘한국문학의 총체적 인식과 전체적 전망’을 주제로 평론을 집중 수록하면서 무크지의 성격과 방향을 부각한다. 주제비평에는 평론가는 물론 이윤택이나 엄국현 등 시인들도 참여했는데, 이처럼 “비평 부재의 시대에 지역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⁴⁸⁾ 했던 『지평』의 비평 강세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현저히 약화된다. 5집부터는 ‘주제평론’ 혹은 ‘권두평론’ 형식의 평론이 한 편 정도 게재되고, 6집부터는 편집 역시 비평가보다는 시인들(강영환, 정일근, 최영철)이 주도하면서 비평을 포함한 여타 장르를 축소해가던 『지평』은 마침내 온전히 시로만 구성된 10집

48) 민병욱, 『민병욱 교수의 ‘다시 문학청년으로’ <8> 무크지 『지평』의 발간 전후下』.

(1991) 발간을 끝으로 중간하게 된다.

비평에서 시로 비중을 이동해간 것은 『전망』 역시 유사하다. 『전망』은 비평가 류종열과 시인 정영태가 편집대표를 맡고 『지평』에서 나온 남송우, 민병욱, 이정주 등이 합류하면서 1984년 9월 창간한다.⁴⁹⁾ 초창기 『전망』은 『지평』보다 한층 더 비평 영역을 강화했다. 이는 편제에서부터 확인되는데, 1집에 한국문학에 관한 ‘주제비평’에 이어 해외 비평이론을 소개하는 ‘특집비평’을 기획한 『전망』은 4집(1986)까지 줄곧 주제비평과 일반비평의 이원화 체제를 가동하면서 비평 중심성을 유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망』은 지역의 새로운 비평가들을 대거 발굴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종래의 등단제도를 거치지 않은 신인들이었으며 한국문학은 물론 외국문학 전공자들도 포함되었다.⁵⁰⁾ 그러나 비평에서 “제 영역을 다져가”⁵¹⁾는 무크지로 주목받았던 『전망』은 5집(1987)에 와서 비평을 포함한 여타 장르를 대폭 축소한 대신 ‘시’ 영역을 강화한다. 5집에는 평론이 전혀 실리지 않았는데, 대신 같은 해 『전망』의 주요 평론가인 민병욱과 황국명이 『『문학과 지성』비판』을 발표했고, 그 직후 발간된 『전망』 5집의 서문에는 “『『文學과 知性』 비판』이라는 소책자는 문학무크운동 『展

49) 『전망』 1집에 참여한 필자들은 남송우, 민병욱, 류종열, 구모룡, 박남훈, 정형철(이상 비평), 정영태, 이정주, 강경주(이상 시), 공옥식, 최화수(이상 소설)이며, 서지학자 박정상과 국문학자 이동영이 각각 논단(『부산 경남지방의 신문잡지 출판』)과 자료해설(『玉龍子馬上歌』)의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론가 구모룡은 『전망』 1집에 참여했으나, 이 무렵 이윤택으로부터 『지평』에 합류할 것을 먼저 제안 받았고 최종적으로 『지평』에 합류하여 3집(1984)부터 동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모룡, 『민족문학을 넘어 지역문학의 장으로-《작가와 사회》 50호 발간을 기념하여』, 『작가와사회』, 2013년 여름호, 12-13쪽 참고.

50) 『전망』 1집~4집이 발탁한 신진 비평가로는 박남훈, 정형철, 황국명, 명형대, 정해조, 강경석, 이상금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전망』을 통해 처음 평론 활동을 시작했으며, 정형철, 정해조, 이상금은 외국문학 전공자들이다. 이들 외에 『전망』에 참여한 기성 평론가로는 민병욱, 남송우, 류종열, 구모룡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모룡은 『전망』 1집에 필진으로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지평』 동인으로 합류하게 된다.

51) 이윤우, 『무크지 제領域 다져간다』, 『동아일보』, 1985. 2. 18.

『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학과 지성』비판』은 ‘비평의 비평’ 세미나의 첫 결과물이기도 했는데, 1985년 ‘남송우, 민병욱, 박남훈, 정형철, 황국명’이 주도하여 결성된 이 모임의 구성원은 대부분 『전망』에 참여해온 비평가들이었다.⁵²⁾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무크의 바깥에서 또 다른 비평운동을 모색했던 이들 비평가들의 활동은 공고롭게도 『『문학과 지성』비판』을 출간한 이후 『전망』에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5집(1987) 이후 『전망』은 비평이 아닌 시 중심 무크지로 전환하며, 이는 6집(1989) 발간 후 중단되었다가 1992년 7집으로 복간하고 1994년 10집으로 마감될 때까지 지속되었다.⁵³⁾

비평이 선도했던 『지평』과 『전망』 모두 이처럼 80년대 후반을 통과하면서 시가 주도하는 무크지로 전향했으나, 이들 매체는 고석규와 김준오에 이어지는 새로운 비평주체들을 배출하면서 지역평단 형성에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물론 두 매체의 차이 역시 존재했는데, 이에 대해 황국명은 『지평』이 해석보다는 사회적 실천을 우위에 두면서 ‘기능적 문화전략’을 취했다면, 『전망』은 문학의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에 반발하며 비판적 해석에 진력하는 ‘존재론적 문화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⁴⁾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평』과 『전망』의 문학/비평 주체들은 상당 부분 동질적인 생각을 견지했는데, 구모룡은 이를 “지방주의의 실천, 극복으로서의 세대주의, 문학과 삶의 동질성 확보, 분단시대 문학의 기본좌표로서의 민족문학”⁵⁵⁾이라 설명한 바 있다. ‘민족문학’이나 ‘문학과 삶의 동질성’ 추구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한국문학이 공유했던 보편적인 인식이라면, ‘지방주의’와 ‘세대주의’는 부

52) 민병욱·황국명·백하현, 『『문학과 지성』비판』, 도서출판 지평, 1987, 201쪽 참조.

53) 이 글에서 분석한 1980년대(1983~1987) 『지평』과 『전망』의 기본적 서지사항과 수록된 평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1987년은 전두환 정권이 강제한 ‘언론기본법’이 87년 6월항쟁 이후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첫해이기도 하다.

* 『지평』

권호(표제)	출판사(출판연월)	수록평론
1집 (VISION)	부산문예사 (1983. 4. 20)	민병욱, 『70년대 한국시의 반성』 남송우, 『80년대 문학의 향방』
2집 (문학과 삶의 지평을 위하여)	부산문예사 (1983. 11. 5)	*주제비평 : 문학과 삶의 지평을 위하여 남송우, 『시의 장형화 현상과 현실인식』 민병욱, 『지방 문학 운동의 형성과 전개』 송희복, 『80년대의 시인의식과 시적 삶』 이윤택, 『대중을 위한 시』 하창수, 『삶의 양식과 소설의 양식』
3집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아서)	도서출판 지평 (1984. 9. 15)	하창수, 『소망과 현실의 변증법』 송희복, 『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구모룡, 『회의와 완전지향의 양극성』
4집 (현실의 역장과 종합에의 긴장)	도서출판 지평 (1985. 5. 30)	*주제비평 : 80년대 문학의 재조명 구모룡, 『형성기 시의 이념』 엄국현, 『시와 이데올로기』 하창수, 『총체성에의 의지와 그 좌절의 양식』 이남호, 『제3세계문학의 개념과 수용자세』
5집 (문학, 갇힌 삶의 풀이)	시로 (1986. 7. 17)	*주제비평: 구모룡 『형성기 시의 전개와 방향』
6집 (지역성 · 문학성 · 민중성)	열음사 (1987. 6. 25)	*권두평론: 구모룡 『변증법적 비평을 위하여』

* 『전망』

권호(표제)	출판사(출판연월)	수록평론
1집 (우리 자유의 깊은 눈 속에)	도서출판 시로 (1984. 9. 28)	*주제비평: 한국문학의 비평적 전망 남송우, 『80년대 장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한 양상』 민병욱, 『한국시의 향가구조와 역사적 삶행위』 구모룡, 『시적 지향과 역사적 차원』
2집 (열림 · 닫힘 · 열림)	도서출판 시로 (1985. 7. 3)	*주제비평 남송우, 『80년대 장시의 한 양상』 민병욱, 『민중시의 실체와 그 전개 양상』 *비평 박남훈, 『문예비평에 있어서의 『문학세계』의 해석문제』 명형대, 『『무진기행』의 환상적 공간구조』 황국명, 『소설 대중화론의 수용자 지향성 연구』 정해조, 『F · 뒤렌마트와 현실』
3집 (말의 왕국을 위하여)	도서출판 국제 (1986. 1. 30)	민병욱, 『80년대 한국시와 삶의 전망』 남송우, 『80년대 전반의 문예비평반성(I)』 황국명, 『주아적 삶과 형식적 서투름』

산의 제3세대 비평주체들을 “우리”로 결속하는 특수한 의식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평』과 『전망』의 무크운동 혹은 지역문학운동은 바로 이 이념들, 곧 지방주의와 세대주의가 합작한 결과일 터인데, 구모룡이 언급한 바 있듯이 ‘세대주의’가 “다른 지방 동세대의 문학인과 더불어 동질적인 차원에서 70년대의 극복을 시도”한 것이라면, ‘지방주의’는 “부산의 제3세대 문학운동의 전략과 지향에 있어 주도적 역할”⁵⁶⁾을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와 결합해 부산의 제3세대 문학운동을 추동했던 가장 유력한 이념이자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한국비평의 중요한 자리에 부산비평을 위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혹은 “부산비평이 한국비평에 있어서 제3의 입장을 견지”⁵⁷⁾할 수 있도록 만든 비평전략으로서의 ‘지방주의’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기획했던 ‘지방주의’의 내막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3. 방법으로서의 ‘지방주의’ 혹은 ‘다른 보편’의 상상

1983년의 무크운동을 분석한 자리에서 백낙청은 『지평』의 지방주의를

		정해조, 『전후 독일 드라마의 양상』 강경석, 『희곡의 서사화 경향』
4집 (어둠 속으로 화살 하나가)	도서출판 지평사 (1986. 9. 15)	*전망의 주제비평: 해석의 공동체를 위하여 황국명, 『80년대 소집단운동의 전략과 그 의식지평』 남송우, 『80년대 전반 문예비평 반성(III)』 박남훈, 『전망주의의 지평을 위하여』 정형철, 『시의 존재양식』
5집 (어찌 우리 이날을)	도서출판 국제 (1987. 7. 30)	*평론 수록되지 않음

54)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33-35쪽.

55) 구모룡, 『제3세대의 문학적 이념』, 69-76쪽.

56) 위의 글, 71쪽.

57) 구모룡, 『부산문학비평사:근대성의 경험』, 앞의 책, 382쪽, 386쪽.

“‘중앙’에 대한 일방적인 규탄에서 어떤 명분을 찾는 빗나간 지방주의”⁵⁸⁾로 평가절하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그가 참조한 것은 채광석이나 성민엽의 논의였다. 채광석은 70년대 『창비』와 『문지』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입각한 대립적, 폐쇄적, 편향적 ‘서울지방’ 문학운동으로 규정”한 『지평』의 지방주의를 “서울의 문학을 중심으로, 그 외 지방 대도시의 문학을 주변부로 설정하는 종속이론”의 도착적인 적용에 불과하며,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와 “실천적 민중의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민중·민족문학 콤플렉스”의 소산으로 적발한다. 채광석에게 “제3세계 리얼리즘문학으로서의 한국 민중·민족문학”은 지역이나 진영을 초월한 ‘보편’이며, 80년대 지방문학운동의 과제는 70년대 이래의 민중·민족문학을 지방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채광석은 ‘민중·민족문학’이라는 당위적 보편을 “‘서울지방’ 문학의 한 조류”로 격하한 『지평』을 “폐쇄적 지방주의”로 폄하한 반면, 『일과 놀이』(광주), 『삶의 문학』(대전), 『마산문화』(마산)를 민중문화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민중·민족문학운동의 지방적 전개의 선진적 모습”이자 “지방문학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고평한다.⁵⁹⁾ 이러한 채광석의 주장을 환기하면서 우회적으로 『지평』을 비판한 백낙청 역시 『일과 놀이』, 『삶의 문학』, 『마산문화』를 “민중지향적 문화운동”을 지방적 차원으로 확산한 경우로 평가하며, 특히 “마산의 독자적이고 지방자치적인 새 문화”를 “마산시민대중의 문화”로 규정한 『마산문화』를 외려 “반지방주의”를 통해 온전한 의미의 “지방적 성격을 부각시킨” 경우로 긍정한다.⁶⁰⁾

백낙청이나 채광석이 간파했듯이 문학·문화의 지방자치화를 추진한 80년대 지역 무크지들 가운데서도 그 지향이나 강도에서 가장 이질적인

58)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앞의 책, 26쪽.

59) 채광석, 『민중·민족문학의 확대심화로서의 지방문학운동』, 『채광석전집Ⅳ 민중적 민족문학론』, 풀빛, 1989, 125-128쪽.

60) 백낙청, 위의 글, 25-28쪽.

것이 『지평』과 『전망』이었다. 가령 광주민중항쟁의 영향 아래 출발한 광주의 무크지들은 “민중문학, 통일문학, 노동자문학 담론”을 가동하면서 반민주적·반민중적 현실에 대항하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했고,⁶¹⁾ 대전의 『삶의 문학』도 ‘민중매체’로 정체성을 정립하고 “민주적 문학”의 실천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삶의 문학』은 “문화의 중앙집권화”는 물론 “향토문화”에 매몰된 “문화의 지방주의” 역시 거부한다.⁶²⁾ 마찬가지로 “새로운 마산문화의 형성”을 선언한 『마산문화』 또한 “진정한 민중적 세계관을 창조”하는 “민중문화운동”⁶³⁾을 지역문화운동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했다. 광주, 대전, 마산의 무크지들이 이처럼 ‘민중성’을 부각하고 지역적 차원의 민중문화 실천에 정향했다면, 『지평』과 『전망』은 ‘지방성’을 부조하고 “중앙/지방, 서울/지방에 의한 한국문학의 이해태도”⁶⁴⁾, 다시 말해 문학·문화의 서울중심주의를 전복하는 데 보다 진력한다.

서울 편향적 문화체제에 도전하는 이 “묘한 지방주의”⁶⁵⁾ 혹은 계층적 지방주의를 추동한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은 우선 80년대를 70년대와 분별되는 “전환기”⁶⁶⁾로 식별했다. 물론 이는 그들만의 시대 감각은 아니었다. 18년의 장기집권과 유신체제가 종식된 80년대는 70년대와는 다른 정치 환경이 도래했고 신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전개되긴 했으나 새로운 치안 권력에 대항하려는 민주주의 세력들 역시 부상했다.⁶⁷⁾ 때문에 구모퉁은 구조적인 면에

61) 이동순, 앞의 글, 145-166쪽.

62) 『삶의 문학』 제6호, 동년, 1984, 4쪽. 임세진, 『문학(성)의 민주화와 민중 언어의 실천-대전지역 무크지 『삶의 문학』을 중심으로』, 140쪽 재인용.

63) 『서문』, 『마산문화』 3권, 도서출판 청운, 1984. 임세진,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 : 『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351쪽 재인용.

64) 『『지평』 2를 대신하면서』, 『지평』 2집.

65)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앞의 책, 248쪽. 『시와 경제』 동인이자 좌담의 사회를 맡은 김정환은 하영권에게 무크지 『토박이』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부산지방의 묘한 지방주의”를 언급한다.

66) 『『지평』을 열면서』, 『지평』 1집.

서 80년대가 70년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현실”로서의 80년대는 “70년대와의 동질성이라는 관념론”이 통용되지 않을 만큼 이질적이며, “80년대를 불확정성, 불투명성, 부정형성 등으로 설명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⁶⁸⁾하는 것이 시대의 주조라 지적하기도 한다. 지배 권력의 붕괴로 촉발된 이 불확실성은 비단 정치나 사회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체제의 이행기에는 지식구조들에 엄청난 질문들이 제기된다는 월러스틴의 통찰처럼,⁶⁹⁾ 80년대는 전대의 지식/문화의 확실성 역시 도전받았고 주지하듯이 이를 촉진한 매체는 무크였다. 무크는 “점증하는 민중의식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채 체제 유지적인 안이한 편집 타성에 젖어” 있는 기성 정기간행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70년대 후반부터 재야의 차원에서 개발된 “경향성 출판물”의 변신이라는 김도연의 지적처럼,⁷⁰⁾ 계간지의 퇴장과 무크 시대의 개막은 80년대의 정치적 외압이 표면적 원인이었으나 기실 특권적 지식체제 바깥의 배제된 지식들의 부상이 보다 유력한 동인일 수 있었다. 80년대 대다수 무크나 무크적 성격의 동인지들이 『창비』나 『문지』를 온전히 계승하기보다 외려 성찰의 대상으로 소환하며, “양자의 변증법적 지양에 의한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문학”⁷¹⁾의 재발명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지평』과 『전망』 역시 80년대를 정치나 사회는 물론 문화에서 “또 다른 세계에의 모색”과 “새로운 이념형”을 창안하는 “형성기”⁷²⁾로 사유하며, 80년대 문학(운동)을 “70년대 문학운동인 <창비학교>와 <문지학

67) 고봉준, 『80년대 문학의 전사(前史), 포스트-유신체제 문학의 의미』, 『한국현대 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 502쪽.

68) 구모룡, 『변증법적 비평을 위하여』, 『지평』 6집, 1987, 24-25쪽.

69) 김용규, 『근대적 지식구조의 변화와 문화생태학의 복원』, 『혼종문화론』, 소명출판, 2013, 68쪽.

70) 김도연, 앞의 글, 243쪽.

71) 위의 글, 242쪽.

72) 구모룡, 『형성기 시의 이념』, 『지평』 4집, 도서출판 지평, 1985, 40쪽.

교>의 역기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형기의 문학”⁷³⁾으로 규정한다. 70년대 문학에 대한 부정과 극복 의지는 『지평』의 경우 발간 초부터 선명했다. 가령 매체의 방향을 제시한 2집의 서문에서 『창비』와 『문지』가 형성했던 70년대 문학을 “순수/참여의 이원론적 경직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삶의 편향성”⁷⁴⁾에 매몰된 것이라 적발하는 한편, 같은 호에 실린 평문에서 민병욱은 80년대 시운동이 “70년대의 연속이 아니라 70년대의 부정의식과 지방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양대 계간지 중심의 편집동인운동이었던 70년대 문학이 한계에 봉착한 주요 원인은 ‘지방의식’의 부재이다. 민병욱은 『창비』와 『문지』가 “중앙/지방, 서울/지방에 의한 한국문학의 이해 태도”를 불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불평등한 구도에 편승해 왔으며, “서울지방의 현실적인 수혜에 힘입어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려는 문학적 노력을 무화시”켜 왔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창비』와 『문지』가 주도한 70년대 문학은 한국문학이라는 보편을 가장해 왔으나 실은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방에서의 문학현상을 수렴”하지 못한 “서울지방문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가 무크나 동인지들이 견인하는 ‘소집단운동’으로서의 80년대 시운동의 형성 동인을 “前시대의 시와 삶에 대한 부정의식과 지방문학주의 의식”이라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방문학주의’란 서울 편향의 70년대 문학과 단절하는 80년대적 문학현상인 동시에 80년대 문학이 지향해야 할 당위적 이념이기도 했다. 때문에 『창비』와 『문지』를 비판 없이 계승하거나 지역문학운동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 80년대일군의 문학주체나 무크 역시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민병욱이 “80년대의 동인들이 70년대의 문학적 흐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본 정다비나, 지방의 시운동에 대한 이해를 “현장답사식 보고”로 일관한 황지우를 “<창비학교>와 <문지학교>의 학생”이며

73) 민병욱, 『지방문학 운동의 형성과 전개』, 『지평』 2집, 96쪽.

74) 『『지평』 2를 대신하면서』, 『지평』 2집.

“서울지방 문학이 한국특별문학으로 이해되고 착각되”는 현실을 답습한다고 적시한 한편, 지방의 무크나 동인지들 대부분이 “발표지면의 확보라는 자기현시적 욕망”의 발로라 지적한 『반시』를 “70년대 서울지방 문학잡지의 보수성과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⁷⁵⁾

양대 계간지가 중심이 된 70년대 문학을 한국문학이라는 ‘보편적 지식’이 아닌 서울 중심의 ‘지배적 지식’으로 파악하고, 보편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재구성된다는 시각은 『전망』 역시 다르지 않았다. 가령 『지평』에 이어 『전망』의 동인으로 참여한 남송우는 80년대 소집단운동을 70년대 『창비』와 『문지』의 발전적 계승으로 본 정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민병욱이 주장한 ‘지방주의’를 “중앙이든 지방이든 모두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보편의 특수적 발현”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견해라 지적한 성민엽에 대해 “지방에서는 이 사회적 모순이 중앙보다는 훨씬 악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⁷⁶⁾한 단견이라 반박한다. 박남훈 또한 80년대 비평을 분석하면서 “작가든 비평가든 간에 그가 속해 있는 준거집단의 전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작품들만이 <진짜>고 그 <요구>를 벗어나는 것들을 모조리 <가짜>로 격하시키는 문학인식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원래부터 보편적인 <진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는 특수를 실현함으로써 보편을 획득할 수 있는 것”⁷⁷⁾이라 역설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창비』와 『문지』를 ‘서울지방 문학잡지’로 규정하고 이들이 주조한 70년대 문학을 서울 이외의 지역성을 배제한 “서울문학”, 곧 보편성을 위장한 특수성이라 지목한 『지평』이나 『전망』의 ‘지방주의’를 “매체를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의 파괴적인 선망과 질투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황국명은 “반지방주의”라 일갈하며, “기

75) 민병욱, 위의 글, 34-96쪽.

76) 남송우, 『80년대 전반 문예비평 반성(Ⅲ)』, 『전망』 4집, 71-72쪽.

77) 박남훈, 『전망주의의 지평을 위하여(Ⅰ)』, 『전망』 4집, 91-92쪽.

득권을 누리는 주체”가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주체를 향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매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⁷⁸⁾

그렇다면 이 계쟁적(係爭的) 지방주의가 겨냥한 문학(장)의 ‘근본적 변화’란 무엇인가.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에 따르면 그것은 “중앙/지방, 서울/지방의 실제공간을 문학공간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의 종식이며 “서울문학=한국문학이라는 등식”⁷⁹⁾의 해체이다. 이는 “각 지방의 문학활동이 중앙과 대등한 관계로 실현되는 것”⁸⁰⁾인데, 서울을 ‘지방화’하고 70년대 문학을 ‘서울지방문학’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문학(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서구유럽의 지식은 발신지를 지우고 발화자에게서 “민족, 인종, 젠더, 성적 인식의 위치를 분리함으로써 진실한 보편적 지식에 관한 신화를 만들어”⁸¹⁾ 왔다는 탈식민주의의 통찰처럼, 80년대 부산발 ‘지방주의’ 역시 70년대 문학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의 매체가 주도한 ‘서울발 문학’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한국문학이라는 보편을 전유해 온 사실에 착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논자들이 유럽이라는 중심을 ‘지방화’하는 기획을 통해 유럽 중심주의를 전복하고 지역의 통약불가능한 차이를 기입하는 다원보편성을 구상했듯이,⁸²⁾ 『지평』과 『전망』의 문학주체들 역시 이른바 ‘서울의 지방화하기’를 통해 서울이 독점해온 보편성과는 ‘다른’ 보편성 혹은 ‘복수’ 보편성을 상상한 것으로 가늠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서도 역력히 간취된다.

78) 황국명, 『80년대 소집단운동의 전략과 의식지평』, 『전망』 4집, 44-46쪽.

79) 『『지평』 2를 대신하면서』, 『지평』 2집.

80) 남송우, 앞의 글, 72쪽.

81) 박치완, 『‘유럽의 지방화’ 논제와 계몽주의적 보편주의 비판』, 『현상학과 현대철학』 84, 한국현상학회, 2020, 119쪽.

82) 박치완, 앞의 글, 109-143쪽;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지음, 김택현·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그린비, 2014, 43-83쪽 참조.

문학적 관점에서 중앙은 서울이라는 실제공간이 아니다. 한국문학은 결코 서울문학이 아니다. 서울·부산·광주·대구 등등 지방에서의 문학현상을 수렴할 때에, 문학에서의 중앙이란 개념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때, 중앙은 지방문학의 수렴의 장이며, 한국 민족문학의 실체를 형성하게 하는 구심점이다.⁸³⁾

오늘날 지역문학운동의 궁극적 지향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있다. 이것은 i) 각 지역마다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민족문학의 다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ii) 지역적인 차원의 심정적 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아울러 iii) 각 지역마다의 개성과 주체성을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불건성이나 종속성을 탈피하고 건전한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iv) 지역적으로 이룩한 연대감은 보다 큰 공동체에의 지향을 형성함으로써 민족공동체에 이르는 방법적 모색이 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야말로 지역문학운동의 중요 의의가 아닐 수 없다. 지역문학운동은 이러한 네 가지 의의를 획득하면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변증법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의 등질적인 문학적 성취를 획득하며 민족문학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확립에 견고한 방법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⁸⁴⁾

매체의 방향성과 지역문학운동의 의의를 밝힌 위의 인용문에서『지평』의 주체들은 “문학에서의 중앙”, 달리 말해 “한국 민족문학”이라는 ‘보편’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학현상이 아닌 다양한 “지방문학의 수렴의 장”이라 재정의하며, 민족문학이 “각 지역마다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형상화한 “다양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종래의 민족문학(론)이 지역성을 결락한 서울 중심의 기획이며, 지역의 문학이나 문화를 수렴하기보다 이를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구성된 ‘단일문화적 보편성’⁸⁵⁾이라는 사실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

83) 『『지평』 2를 대신하면서』, 『지평』 2집.

84) 『지평 5집을 펴면서』, 『지평』 5집, 시로, 1986, 4-5쪽.

85) 김용규, 『아래로부터의 세계문학: 카자노바의 『세계문학공화국』을 넘어』, 『비평과 이론』 제19권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4, 12쪽. 필자는 월터 미놀로와 같은

적으로 이룩한 연대감”이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적 모색”일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주류 매체에 의해 주조된 ‘민족’이나 ‘민족 의식’이 지역과 같은 미시적 차이들을 폐제한 균질적 구성물이라는 사실 역시 환기한다. 따라서 지역의 시각을 통한 “민족문학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확립”에 개입하고, “각 지역마다의 개성과 주체성을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봉건성이나 종속성을 탈피”한 ‘복수문화적 보편성’을 상상한 부산의 비평주체들이 70년대 민족문학론이나 그 연장으로서의 80년대 초 제3세계문학론 및 민중문학론과 거리를 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주지하듯이 민족문학론은 70년대 문학장의 주류적 기획이며 이를 견인한 것은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창비』의 논자들이었다. 백낙청은 민족주의를 복고주의나 국수주의와 분리하면서 국민문학과는 변별되는 선진적인 ‘민족문학’ 개념을 창안한 한편, “민족생존권의 수호와 반봉건적 시민혁명”⁸⁶⁾을 완수할 주체로 (소)시민이 아닌 각성한 ‘민중’을 발탁한다. 따라서 70년대 백낙청과 『창비』가 주도한 민족문학론은 민족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식을 표현하고 일깨우는”⁸⁷⁾ ‘민중적 민족문학론’으로 요약 가능한데, 이는 80년대를 전후해 다시 제3세계문학론으로 이행한다. 『창비』의 ‘제3세계’ 특집(1979년 가을호)을 계기로 본격화된 제3세계문학론은 한국 민족·민중의 현실을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민족·민중의 공동 현실로 인식하고, “제3세계의 여러 민족과 민중에게 안겨진 현 단계 인류역사의 사명에 부응하는 문학”을 “진정한 민족문학”이자 연대해야 할 “제3세계문학”이며 “훌륭한 세계문학의 일원”⁸⁸⁾으로 지시한다.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의 논의를 독해하며, 다른 지역문화와 지식들을 배제하거나 거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단일문화적 보편성이 아닌 다른 문화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복수문화들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보편성의 구상에 주목한다.

86)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131쪽.

87) 위의 글, 129쪽, 130쪽.

때문에 백낙청은 “진정한 제3세계문학은 민족문학이자 민중문학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때 민중문학이란 “민중 자신이 집필한 문학이라는 지나치게 좁고 매우 비현실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민중 자신이 “작가로서나 독자로서나 혹은 미처 깨닫지 못한 후원자로서나 그 문학의 주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⁸⁹⁾ 문학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3세계문학론은 80년대 초 유력한 담론으로 부상했는데, 그러나 『지평』의 창간호에서 남송우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다. 남송우에 따르면 제3세계문학론은 “문학의 현실참여적 입장, 리얼리즘의 추구”를 획일적으로 요구하고 “민중문학”이나 “민족문학의 추구로 이어”짐으로써 “문학 본질의 의미 추구보다는 문학의 효용”⁹⁰⁾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3세계문학론이 문학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저해하는 “폐쇄된 문학적 경향이나 이즘”⁹¹⁾이 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보이는데, 송희복 역시 문학의 “창조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현상이 “민중문학이라는 도그마티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80년대의 민중문학론이 60년대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으로부터 발원해 70년대 “『창비』계열에 의해 검증되고 실천하는 가운데 약간의 변질된 형태로 나아”갔으며 “서구적 식민적 유제를 극복하려는 방편의 하나로 제3세계적 문화적 유대감을 찾으려”는 과정의 소산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민중문학론이 민중문학만을 민족문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중문학이 아닌 모든 문학은 비민족문학 내지 반민족문학이 될 수밖에 없는 흑백논리에 표착하고 만다”고 지적한다. 또한 송희복은 『창비』의 민족문학론을 답습한 민중문학론자들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제시하는 민중이 “이 땅의 억압받는 이들에게 하향적인 시각과 시혜적인 축각으로” 주조된 것은 아닌지 성찰을 촉구하며, 민중 계층의 소망과 이익을 대변했던 정약용의

88) 백낙청, 『제3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1979. 9, 48쪽.

89) 백낙청, 위의 글, 54쪽.

90) 남송우, 『80년대 문학의 방향』, 『지평』 1집, 58쪽.

91) 『“지평”을 열면서』, 『지평』 1집.

시가 “민중친애적인 엘리트문학”에 불과하듯이 지식인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민중지향적 문학 역시 온전한 의미의 민중문학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⁹²⁾

이와 유사한 비판은 이운택 역시 제기하고 있다. 이운택은 70년대 민중문학(론)이 “민중개념을 주로 노동자 농민 등과 극빈층에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대 민중집단인 무산 비육체노동자”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놓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무산 비육체노동자’란 “소시민”을 의미하며, 이들은 “육체 노동자와 함께 혁명적 기능을 갖는” 역사적 존재들이지만 종래의 민중 범주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민중문학론이 “민중-지식인 격절 콤플렉스”에 빠져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중은 “지식인과 격절된 계층이 결코 아니며, 민족 개념과도 맥을 닿는 거대한 인간집단”으로 “극빈 농민 노동자 부랑자의 대변 개념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운택은 종래의 “민중 개념의 실제적 허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80년대 부상한 ‘대중’ 개념을 옹호하는데, 그에 따르면 대중이란 천박하거나 민중과 다른 의미라기보다 협소한 민중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그는 민중의식이 아닌 대중의식의 근원을 “창조적 자유의지”로 전제하며 이를 “피상적인 울분과 계몽주의로 손쉽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70년대 민중의식이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민중을 부조했으나 실재하는 민중 내지 대중은 “생리적으로 자유로움과 인간의 역동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명량한 삶을 스스로 이끌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중문학에 내재한 “선민의 교사적 기능”을 “위험한 시선”으로 경계하면서 개인을 민족 혹은 민중으로만 환원하는 이념적 재현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가령 광재구의 시 『김득구』에서 김득구의 죽음이 “한 무명 프로복서의 자기충실성으로 이해”되기보다 민족주의적 “집단의지로 확대되면서” “개인의 진실은 묻히고” 말

92) 송희복, 『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지평』 3집, 도서출판 지평, 1984, 154-158쪽.

왔다고 분석하는데, 때문에 그는 “사실과 진실의 무서움을 간과한 자기 도취의식”의 민중시가 아닌 실존하는 민중들의 삶을 포착하는 ‘대중을 위한 시’를 제안하기도 했다.⁹³⁾

70년대 『창비』에서 발원한 민족문학(론) 혹은 민중문학(론)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을 제기했던 『지평』을 『우리 세대의 문학』 등과 함께 문학의 운동성을 중시하기보다 “미적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인정한” 무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창비』의 ‘참여/집단주의’뿐 아니라 『문지』의 ‘순수/개인주의’를 비판했던 『지평』을 사실상 『문지』를 계승한 『우리 세대의 문학』과 동류로 분류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⁹⁴⁾ 민족·민중문학(론) 비판을 통해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겨냥한 것은 단지 문학의 운동성을 배제한 미적 자율성의 옹호라기보다, “구체적 현실성”을 사상하고 “신비주의화할 위험”⁹⁵⁾에 처한 구태의 민족·민중문학론의 해체이며, 종래의 “편협성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민중문학”⁹⁶⁾ 혹은 ‘민족문학’의 재구성을 상상한 것으로 간파되기 때문이다.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구상한 ‘구체적 현실성’을 담보한 민족·민중문학이란 전술했듯이 ‘지역마다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삭제하지 않는 민족문학이며, 이념이 아닌 ‘실체’로서의 민중과 편향된 민중주의가 아닌 “포괄적 민중성”⁹⁷⁾에 지지된 민중문학으로 가늠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구모룡은 ‘민중실천’의 문학을 제안하며 민병욱은 ‘민중시’로의 전환을 긍정한다. 80년대 시의 전개와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구모룡은 전문 문인의 ‘민중지향적’ 시작(詩作)과 노동자·농민과 같은 비전문 작가의 ‘민중주체적’ 창작을 “전문성/소인성으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민중

93) 이운택, 『대중을 위한 시』, 『지평』 2집, 122-143쪽.

94) 고봉준, 앞의 글, 510-513쪽 참조. 강제 폐간되었던 『문학과 지성』은 1982년 편집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무크지 『우리 세대의 문학』으로 다시 태어났다.

95) 『지평』 3집을 내면서, 『지평』 3집.

96) 구모룡, 『지평』 4집, 43쪽.

97) 『지평』 6을 내면서, 『지평』 6집, 열음사, 1987, 9쪽.

현실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시적 성취에 이르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이해하며, 민중주체성과 민중지향성을 “민중실천성으로 포괄”해 내는 새로운 민중문학의 방향을 제시한다.⁹⁸⁾ 한편 민병욱은 전대의 민중지향적 시를 넘어 “창조적 주체로서의 민중이 민중적 삶의 양식을 예술적으로 형상화”⁹⁹⁾한 민중시를 온전한 민중문학으로 납득하는데, 이들이 피력한 민중문학론의 방향은 물론 차이가 있었으나 70년대와는 변별되는 민중문학을 창안하려는 공통된 열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추동한 지역문학운동과 그 이념으로서의 ‘지방주의’는 비단 “지방문학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¹⁰⁰⁾하거나 “문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차원을 넘어 전술했듯이 새로운 “민족문학의 완성에 그 궁극적 목표”¹⁰¹⁾가 있었던 것으로 독해된다. 이들이 재구(再構)하고자 했던 민족문학이란 경직된 민중주의는 물론 지역의식의 부재를 극복한 민족문학이며, 달리 말해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통하여 보편성을 얻어내는”, 혹은 “갈등을 통한 생성과 창조”의 원리를 앞세우는 “변증법적” 민족문학으로 간취된다. 때문에 구모룡은 80년대의 민족문학(론)을 민중문학론, 노동자문학론, 농민문학론과 더불어 ‘지역문학론’을 포괄하는 상위범주로 다시 설정하며, 지역문학론이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나 자기현시적 욕망에서 발원한 향토주의적 소산이 아니라 “문화적이든 경제·정치적이든 지역의 주변화 또는 변두리화”라는 대내적 종속의 극복을 통해 “신식민주의적 상황”이라는 대외적 종속마저 해소하려는, 곧 “문학과 삶의 민주화”를 겨냥한 정당한 지향임을 분명히 했다.¹⁰²⁾

98) 구모룡, 「형성기 시의 전개와 방향」, 『지평』 5집, 17-19쪽.

99) 민병욱, 「민중시의 실체와 그 전개양상」, 『전망』 2집, 시로, 1985, 118쪽. 민병욱 역시 이운택과 유사하게 노동자·농민·빈민 등과 더불어 ‘빼떠부르주아지와 진보적 지식인’을 민중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다만 전자를 주 구성으로 후자를 부 구성으로 지시한다.

100) 김도연, 앞의 글, 244쪽.

101) 「지평 5집을 펴면서」, 『지평』 5집, 5쪽.

『지평』과 『전망』은 이렇듯 폐쇄성과 분파성을 극복한 “개방성과 종합성의 지방주의”¹⁰³⁾를 비평전략으로 선택하고 지역문학운동의 실천적 미디어로 역할했으나, 기실 이들 매체나 비평주체들의 입장에는 차이 역시 존재했다. 특히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지평』이 초기의 ‘지방주의’에 대한 성찰을 제기했다면 『전망』은 외려 ‘지방주의’의 이념적 확대를 모색한다. 다시 말해 『지평』은 초기의 ‘지방주의’가 “지역중심주의적 편견과 단순성”을 노정했으며 “주변부/중심부의 종속논리”에 제한되거나 이러한 논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역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역 역시 저마다의 “모순을 안고 있는 현장으로 파악하는 중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인식”의 심화를 주장했다면,¹⁰⁴⁾ 『전망』은 ‘지방주의’를 서울중심주의는 물론 “상업주의, 권위주의, 보수주의”¹⁰⁵⁾에 지지된 구체제적 문학(장)을 해체하기 위한 이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주의’나 지역문학운동의 전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이들 매체의 비평적 구상 역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를 살피고자 한다.

4. 대안적 비평의 모색 - ‘변증법적 비평’, ‘비평의 비평’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지평』과 『전망』은 80년대 비평과 문학운동에 대한 성찰과 쇄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가령 『전망』은 80년대 문학운동 매체들이 “기존 문학의 틀을 변혁하려는 역할을 그만

102) 구모룡, 「지역문학운동의 과제와 방향」, 『젊은 세대의 문학』, 시로, 1986, 22-23쪽.

103) 『『지평』 2를 대신하면서』, 『지평』 2집.

104) 『『지평』 6을 내면서』, 『지평』 6집, 11쪽.

105) 『책 머리에』, 『전망』 2집, 8쪽.

두고 자폐증적 매너리즘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존세대가 노정한 구태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80년대 문학운동의 “상업주의와 권위주의로의 분극화 현상”¹⁰⁶⁾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진단한다. 이러한 반성은 『지평』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지평』은 80년대 비평의 풍토가 “종합예의 의지를 잃고 개별적 주장이나 주의의 나열로만 일관하거나 아니면 이로써 비롯되는 도당을 형성”하고 있으며 때문에 “주관성의 극대화로 비평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¹⁰⁷⁾고 직격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전망』과 『지평』은 80년대 비평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시도하는데, 이를 먼저 개시한 것은 『전망』이다. 민병욱은 『전망』 창간호에 수록한 평문에서부터 그 상당 부분을 80년대 비평에 대한 메타비평에 할애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80년대 비평운동을 70년대 비평에 대한 방향전환으로 규정하는 한편 80년대 비평을 실천비평, 의식비평, 분석비평, 예술·문화비평으로 분류하고, 특히 ‘실천비평’에 주목한다. 그가 구분한 실천비평이란 『한국문학의 현단계』나 『실천문학』을 운동매체로 하여 “70년대 비평운동인 <창비>의 이념비평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려고 하면서 80년대 비평운동의 전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비평을 의미한다. 민병욱에 따르면 70년대 이념비평이 “이념의 관념적 자기전개” 속에서 “이념의 보수화”를 초래했다면, 80년대 실천비평은 “이념의 현실적 자기전개”를 통해 “이념의 실체화·실천화”를 지향한 점에서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실천비평이 긍정적 기능을 항상 수행하는 것은 아닌데, 실천비평은 이미 전제된 절대적 이념을 문학주체에게 강요하거나 이를 준거로 문학을 재단하는 ‘입법비평·재단비평’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문학의 현실적 존재 양식과 존재가치에 대한 의미해석도 없이 비평가의 이념만을 설득시키려는” ‘인상비평·구호비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자기개혁이

106) 위의 글, 9쪽.

107) 『『지평』 4를 내면서』, 『지평』 4집.

라는 의미로서의 전향이 실천비평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¹⁰⁸⁾ 이러한 평가를 통해 그가 겨냥한 것은 70년대 비평과의 거리 두기로 보인다.

80년대 문학운동과 비평이 70년대를 극복하는 데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은 황국명이나 남송우 역시 제기했다. 황국명은 80년대 동인·무크의 주체들이 70년대와 맺는 관계를 “70년대로부터의 이반(결별, 자생의 논리, 특수화의 분리원리)”과 “70년대의 상속(계승·연장의 논리, 일반화의 병합원리)”으로 대별하는데, 그의 비판의 초점은 후자에 있다. 그는 “상속의 병합원리”에 입각해 있는 비평주체들이 “80년대의 소집단운동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70년대의 두 계간지가 질적 양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70년대를 “문학운동의 본질”이나 “교훈”으로 삼는 한 80년대의 소집단운동은 “주변적 비본질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주목할 점은 황국명이 『창비』와 『문지』를 전세대의 탁월한 문학운동으로 평가하고 80년대 무크운동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파악한 구모룡을 이남호, 채광석 등과 더불어 “7,80년대 문학운동에 대한 해석방향을 공유하는 해석공동체”로 평가한 것인데,¹⁰⁹⁾ 남송우 역시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다.

남송우는 평문 『80년대 전반 문예비평 반성』을 통해 성민엽, 정과리, 민병욱, 구모룡의 비평에 주목하며, 특히 전 세대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 논리가 수반되지 않은 정과리와 구모룡의 한계를 지적한다. 남송우에 따르면 정과리는 70년대 『창비』와 『문지』를 순수/대립이 아닌 “현실의 몸담음/현실의 반성적 질문”으로 이해하고, “80년대 소집단운동을 70년대 창비·문지 집단운동의 구체적 분화이면서 실천적 확대로 보는”데, 이러한 논리 전개는 “창비와 문지의 지향점을 변증법적 합일에 의해 중

108) 민병욱, 『한국시의 향가구조와 역사적 삶의 행위』, 『전망』 1집, 32-43쪽. 민병욱은 이 평문의 절반 이상을 80년대 비평, 특히 실천비평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할애한다.

109) 황국명, 『80년대 소집단운동의 전략과 의식지평』, 앞의 책, 11-31쪽.

합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새로운 차원의 의미탄생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대한 부정의 논리가 더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0년대 문학의 문제점이 충분히 상론되지 않았기에 80년대 문학운동에 대한 정과리의 이해는 기실 “변증법적 사유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것이 된다. 남송우는 구모룡 역시 정과리와 유사한 시각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는 구모룡이 “70년대 창비와 문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민중론자의 관점의 연장선에서 80년대 민중문학론의 전개를 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80년대를 극복해야 할 ‘과도기’로 설정함으로써 70년대에 대한 극복의 논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¹¹⁰⁾

구모룡에 대한 황국명과 남송우의 비판은 구모룡의 평문 『형성기 시의 이념과 80년대 시의 위상』(『지평』4집, 1985)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구모룡은 “『문지』의 문학주의가 보여준 현실 대응력의 약화 및 『창비』의 편향성은 극복되어야” 하지만, 이들에 의해 실천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대립된 시각에서 살피고 있는 비평적 유연성의 결여”는 비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지』와 『창비』의 문학운동은 “억압과 차별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회구한 실천적 운동”이며 “극복해야 할 두 대립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세대의 논리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80년대라는 과도기를 어떠한 형태로 극복하느냐 하는 방법의 모색”과 “총체성을 잃지 않는” “종합주의”의 회복이 80년대 비평의 과제라고 강조한다.¹¹¹⁾ 이러한 진단을 통해 구모룡이 80년대 비평의 ‘트리비얼리즘’을 극복할 대안으로 촉구한 것이 ‘변증법적 비평’이다.

구모룡은 『지평』 6집에 수록한 『변증법적 비평을 위하여』(1987)에서 70년대 비평 논리를 대표한 『창비』의 “편향성”과 『문지』의 “문학주의”는 극복되어야 하지만 이들 매체의 공백을 단순히 두 그룹의 해체나 퇴

110) 남송우, 『80년대 전반 문예비평 반성(II)』, 앞의 책, 51-79쪽.

111) 구모룡, 『형성기 시의 이념』, 『지평』 4집, 16-17쪽.

진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재차 주장한다. 외려 논리의 진전과 자기 갱신을 거듭하는 백낙청이나 김병익의 80년대 비평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으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순한 매도를 경계한 자신의 주장을 ‘반부권적인 대항으로서의 80년대 무크운동’을 폄훼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80년대가 “해체와 파괴를 통한, 그리고 통합의 노력을 통한 형성의 시대”가 되어야 하지만, 80년대 비평은 이러한 “변증법적인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 그는 이남호와 김도연의 비평에 주목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남호의 경우 “문학성의 물신화”를 통해 “문학의 계서, 층위, 나아가서는 계급을 확정”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일반 민중의 소외를 기정사실화”했다면, 김도연의 비평은 “목적의식적 장르확산의 논리”나 “매체와 내용이 보여주는 정치적 효과”에만 집중함으로써 “민중운동과 문학운동의 병존이라는 문화전략을 편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형식주의적 비평 논리에 입각한 이남호의 ‘분석/해석 비평’과 목적의식적 비평 논리를 견지한 김도연의 ‘이념/실천 비평’을 모두 “비변증법적”이라 판단한 구모룡은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변증법적 비평’의 심화를 강조한다. 프레드릭 제임슨의 논의를 참조한 그는 변증법적 비평을 “비평행위라는 운동성 속에서 현상과 본질 어느 한 쪽에 편향됨이 없이 주고받는 통합적 사고”라 규정하며, 이를 80년대 비평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강조한다.¹¹²⁾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은 80년대적 변동 속에서 출현한 무크운동과 이를 추동한 80년대 비평이 더 이상 진전된 의미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공유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평』의 구모룡이 80년대 비평의 한계를 70년대 『창비』와 『문지』에 대한 해체와 파괴에 집중할 뿐 ‘통합/종합’의 노력이 부족한 데서 찾았다면, 『전망』의 비평주체들은 70년대 계간지 운동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나 ‘비판’ 없이 계승/

112) 구모룡, 『변증법적 비평을 위하여』, 『지평』 6집, 17-41쪽.

상속의 논리에 투항한 데서 80년대 비평의 부진을 간취한 것이다. 이처럼 『전망』과 『지평』은 80년대 비평이 ‘비변증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판단은 동일했으나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달랐으며, 때문에 이들 매체 모두 80년대 비평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변증법적 상상력’을 주문했으나 이를 실천하는 비평적 구상은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즉 구모룡이 70년대 비평에 대한 ‘비판적 계승’과 80년대 비평의 분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주의’에 정향한 ‘변증법적 비평’을 제안했다면, 『전망』의 비평주체들은 해석의 불평등을 초래한 70년대 비평의 극복과 80년대 비평/해석의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평의 비평’을 제출한 것이다.

『전망』에서 비평의 비평을 처음 제기한 이는 박남훈이다. 그는 비평이 가치판단뿐 아니라 ‘해석행위’라 강조하며, 문학세계를 규명하는 해석의 공정성을 성찰하기 위한 “비평의 비평(criticism of criticism)”이 부재한 것이 한국의 비평 풍조라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문학세계는 폐쇄체계가 아닌 운동성을 지닌 미완의 ‘동적 체계’이며, 주체(작가)-객체(세계) 사이의 변증법적 통일을 성취하려는 삶의 실천 행위이자, 저마다의 ‘특수성’을 보유한 실체로 파악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비평에서 이를 전제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 박남훈은 김수영의 문학을 해석한 김현, 염무웅 등의 비평에 대한 메타비평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그는 김현의 비평(『자유의 문』)이 ‘자유’라는 선형적 규정에 김수영의 문학세계에 잠재된 특징들을 환원시켰다고 비판하는 한편, 염무웅의 『김수영론』에 대해서도 ‘모더니즘’이라는 일반화된 범주로 김수영의 문학세계를 연역적/폐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동적체계이자 특수성을 지닌 김수영의 문학을 온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¹¹³⁾

113) 박남훈, 『문예비평에 있어서의 ‘문학세계’의 해석문제』, 『전망』 2집, 151-175쪽. 이 글에서 박남훈이 비평한 김현, 염무웅, 김우창 등의 비평은 『김수영의 문학』(황동규 편, 민음사, 1983)에 수록된 평문이다.

이처럼 비평이 ‘해석행위’이며 또한 ‘해석의 정치’가 발동하는 장이라는 사실은 박남훈뿐만 아니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공유했던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지평』 창간호에서 가치평가가 비평의 중국적 목적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치평가란 있을 수 없”¹¹⁴⁾다고 강조했던 남송우는 『전망』에 참여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해석의 우선성을 부각한다. 특히 그는 가다머의 해석학에 주목했는데, “해석의 객관성을 위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의도주의”를 견지한 허쉬와 달리 가다머는 “해석자의 상황을 기초로한 해석을 추구하”는 “투시주의”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남송우는 “해석자의 의미를 확정짓는 저자의 전권을 부정”하고 “해석자의 역사성”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다머의 해석학에 동의하며, 문예비평에서의 해석은 “해석자인 주체와 작품인 객체가 서로 만나 양자가 변증법적 합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한다.¹¹⁵⁾

저자의 의도나 특정 문화에 폐쇄된 ‘단일한/특권적’ 해석을 거부하고 해석자들의 개입에 따른 해석의 ‘복수성/개방성’을 지향하며, 주체와 대상(작품) 간의 ‘대화적 과정’ 혹은 ‘서로 다른 지평들의 융합’¹¹⁶⁾으로 해

114) 남송우, 『80년대 문학의 향방』, 『지평』 1집, 52쪽.

115) 남송우, 『80년대 전반의 문예비평 반성(I)』, 『전망』 3집, 35-36쪽.

116) 김정현, 『자문화중심주의와 해석학적 타자 이해』, 『해석학연구』 제34집, 한국 해석학회, 2014, 103-132쪽. 이 논문은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자문화중심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읽어낸 찰스 테일러의 논의를 조명한다. 찰스 테일러는 가다머의 해석학이 정초한 ‘지평 융합’ 개념에 주목하는데, 지평 융합이란 텍스트 이해/해석의 과정을 해석 주체와 대상 간의 상이한 지평들의 융합과 새로운 지평의 생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가다머의 해석학이 제시하는 ‘이해’의 모델이란 해석자가 자기이해를 구성해온 지평(지역성)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타문화(해석 대상)와의 조우를 통해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지역적 이해를 초월하는 상호문화적 소통이자 변증법적 대화이다. ‘이해/해석’을 통해 해체되는 자기지역적 이해, 즉 자문화중심주의란 성찰 없이 “자문화의 기준을 보편적이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며, 특히 이때의 주체는 대개 자신의 이해를 자문화중심주의와 무관한 것으로 오인한다. 남송우가 가다머의 해석학을 적극적으로 참조한 것 역시 서울 중심의 자기지역적 해석을 극복하고 대화적 이해/

석행위를 재정의한 가다머의 논의는 남송우를 포함한『전망』의 비평주체들이 ‘전망주의’를 기획하는 데도 주요한 이론적 거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망』의 비평주체들은 그들을 새로운 ‘해석공동체’로 결속할 이념으로 ‘전망주의(perspectivism)’를 제시하고 비평의 비평을 본격화하는데, 이를 촉진한 계기가 비평의 비평 세미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했듯이 비평의 비평 세미나는 1985년 10월 남송우, 민병욱, 박남훈, 정형철, 황국명이 주도해 결성되고 1986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구체적 결과물이 처음 집약적으로 제출된 것이 『전망』 4집(1986)의 주제비평이다.

‘해석의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이 주제비평에는 황국명, 남송우, 박남훈, 정형철이 참여해 비평의 비평을 시도했으며, 앞서 살폈듯이 성민엽, 이남호, 정과리, 김도연, 구모룡 등 80년대 동인·무크 운동을 견인한 신진 세대의 해석행위가 비평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면, 70년대 계간지 운동을 주도했던 주류적/지배적 해석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독해 역시 시도되었다. 가령 황국명은 ‘80년대 소집단운동의 전략과 그 의식 『지평』을 통해 『문지』의 김병익과 『창비』의 백낙청이 지닌 80년대 문학운동에 대한 해석학적 편견을 지적한다. 그는 80년대 문학주체의 지향을 “형식적 과격성”과 “내용적 과격성”로 양분하고 이를 70년대 참여/순수 문제를 전위적인 양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파악한 김병익의 해석에서 70년대와는 다른 전망을 지닌 새로운 시도를 전 시대와 “동일한 이념적 틀”로 환원하려는 “보수적 엘리티즘”을 간취하며, 아울러 민중이 주체가 된 문학을 문학적 “세련화”를 갖추지 못한 ‘비문학’ 내지 ‘문학 이전의 것’으로 판단한 김병익의 비평에서 “문학(문화)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와 같은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부르조아 가치가 적재된 기존 문학개념을 강조”한 “문학주의”를 읽어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80년대 소집단운동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진단하고 민중 주체 문학의 비

비평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간취된다.

전문성을 평가절하하거나 문화의 지방자치화 주장을 자기현시적 분노로 규정한 백낙청의 독법에서 기성 이익을 지키려는 “부권적 엄숙주의”나 “반지방주의”를 내재한 해석의 정치를 간파하기도 한다.¹¹⁷⁾

한편 박남훈은 『전망주의의 지평을 위하여(I)』를 통해 부분적이긴 하지만 ‘비평의 비평’ 이론화를 모색하며, 80년대 중반을 넘어선 평단에 요청되는 비평작업으로 비평의 비평을 거듭 강조한다. 그는 ‘비평의 비평’을 80년대 시/문학의 흐름을 “평가·분류·해석해온 비평텍스트들의 준거들과 그 준거들에 얽혀 있는 착잡한 문학 내·외적 맥락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80년대 시/문학의 흐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문학사적 변화양상들의 의미를 새로운 지평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비평의 비평’이라는 “미개척 장르”의 “존재의의와 그 이론적 함축, 그리고 구체적·본격적인 비평적 개진”이 자신이 속해 있는 “해석의 공동체”에 의해 공동작업으로 수행될 것”이라 언급하며, ‘비평의 비평’이 취할 새로운 관점이자 패러다임인 “전망주의(perspectism)”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분석대상 비평텍스트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 텍스트들이 함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전망주의적 관점에서 비판·검토해 나감으로써 이 전망주의를 당대 비평이 구축해나가야 할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전망주의는 문학과 문학텍스트들에 대한 해석이 소수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준거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옴으로써 야기된 해석의 비민주적 현상을 타파하고 그들 비평텍스트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신념과 가치체계, 즉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시대의 비평현상을 특징지우는 분파성의 존재의의를 규명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 분파성을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용인하기 보다는 극복하기 위한 비평적 대응방식의 일환으로서(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당대가 요청하는 의미있는 삶에 대응할 수 있는 전망을 다함께 모색하기 위한 개방적 비평적

117) 황국명, 『80년대 소집단운동의 전략과 의식지평』, 『전망』 4집, 31-46쪽.

대화의 광장으로 유도하는 잠정적인 방법으로서의 패러다임일 뿐이다.¹¹⁸⁾

이와 같이 소수의 명망가나 준거집단이 장악해온 해석의 비민주성을 타파하고 “개방적 비평적 대화”를 유도하는 잠정적/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지시된 ‘전망주의’는 또한 “정확한 해석을 독점”하면서 “해석상의 새로운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념적 열정을 억압”¹¹⁹⁾해온 패권적 해석공동체와 『전망』의 비평주체들을 차별화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기실 이들에게 해석의 자유를 봉쇄하고 내부적 성찰 역시 부재한 특권적 비평집단이란 온전한 의미의 해석공동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비평의 비평 세미나의 또 다른 결실이자 비평의 비평에 대한 적극적 이론화를 모색했던 『『문학과 지성』비판』(1987)에서 민병욱과 황국명은 해석공동체가 “해석상의 방략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지만 “공유된 해석방략” 혹은 “비평적 동의”란 구성원들 간의 “비평적 교환”을 통해 도달하는 일치, 즉 “대화 끝에 하나의 동의에 도달”되는 것이라는 피쉬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진정한 해석공동체는 “자유로운 해석자들의 공감 영역”이라 주장한다. 이때 해석의 자유란 “텍스트의 의미구성에 있어서 해석자가 자신의 고유한 신념·이데올로기·선입관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자유를 통해 공감/동의 가능한 해석전략을 공유하는 해석공동체는 “공동체적 집합성”을 보유하되 “해석을 내·외적으로 제한하는” “배타성” 내지 ‘전체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¹²⁰⁾

한편 해석의 자유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해석공동체, 즉 ‘상이한 해석은 물론 자기 영역에 관한 의문을 봉쇄’하는 비평집단의 경우, 해석자는 단지 “해석집단의 명령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며, “의미론

118) 박남훈, 「전망주의의 지평을 위하여(I)」, 『전망』 4집, 81-82쪽.

119) 민병욱·황국명, 「장르로서의 『비평의 비평』」, 앞의 책, 35-40쪽.

120) 위의 글, 35-38쪽.

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해석은 “의심할 바 없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해석으로 선전된다. 이와 같이 “해석 자유의 박탈과 의미의 반민주적 독점화”¹²¹⁾에 도전하는 『전망』 비평공동체의 이념이 ‘전망주의’이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대안이 ‘비평의 비평’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비평의 비평은 특정 해석공동체에 대한 편파적 매도가 아니라 “해석의 전제적 현상”을 해체하려는 “창조적 배반”이며, 해석공동체의 “분과적 단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분열을 통합하여 창조”에 이르기 위한 변증법적 과정이다.¹²²⁾ 『『문학과 지성』비판』(1987)을 공동 기획한 민병욱과 황국명은 비평의 비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평의 비평은 (i)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논쟁적 대화를 지향하여 해석의 전제적 현상을 타파함으로써 동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삶에 대응할 수 있는 해석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산출하고 (ii)해석의 다양한 공유를 통하여 준거집단 간의 분열된 이데올로기를 지양·극복할 수 있는 변증법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¹²³⁾

해석공동체들 간의 ‘논쟁적 대화’를 촉발하고 해석의 민주주의를 추동한 비평의 비평은 랑시에르의 논의를 빌면 치안의 논리가 지배해온 문학장, 달리 말해 특정한 해석공동체가 특권적/가시적 해석을 독점해온 비민주적 비평/해석의 장에 ‘내분’을 일으킨 ‘정치’로 독해할 수 있지 않을까.¹²⁴⁾ 그러나 『전망』의 비평공동체가 수행한 이 정치는 해석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다양한 공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론적 지평”을 열기 위한 실천이었기에 변증법적 비평의 또 다른 형식이며, 때문에 구모룡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1990년대 초 『오늘의 문예비평』을 함

121) 위의 글, 39-40쪽.

122) 위의 글, 12-28쪽.

123) 위의 글, 15-16쪽.

124)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207-235쪽 참조.

께 기획하고 지역문화운동을 실천하는 대안적 비평공동체로 공동의 문화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른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이차적 저항’으로의 이행

1980년대 부산발 무크운동을 견인했던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은 90년대 들어 ‘오늘의 비평’ 동인으로 결속하고 1991년 4월 비평전문 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이하 『오문비』)을 창간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정기간행물 등록의 자유화라는 ‘제도의 정상화’¹²⁵⁾로 무크시대는 사실상 종언했으나, 『지평』과 『전망』의 문학주체들에게 이는 지역문학운동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문비』의 비평동인으로 연대한 이들은 발간사에서 “지역에서 비평전문지”를 만드는 것은 “기존 서울 중심의 문학구조로부터 탈중심화를 지향하는 지역문화운동”의 일환이며 “부산의 지역문학 활성화와 함께 지역문화의 질적 제고”¹²⁶⁾를 지향하는 것이라 천명한다. 『전망』과 『지평』의 비평주체들에게 『오문비』의 창간은 ‘무크 없는 무크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한 도전적 기획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문비』의 창안을 통해 이들이 구상한 것은 단지 80년대적 ‘지방주의’를 재가동하거나 80년대식 지역문학운동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문학운동의 90년대적 전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오문비』 첫 호에 마련된 좌담에서도 피력된다. ‘오늘의 비평과 지역문학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 좌담¹²⁷⁾에서 참석자들은 80년대 지역문학운동,

125) 김대성, 『제도 혹은 정상화와 지역문학의 역학-‘피난문단’과 ‘무크지 시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54쪽.

126) 『비평전문지를 창간하면서』, 『오늘의문예비평』 통권1호, 지평, 1991. 4, 16쪽. 창간호에 등재된 ‘오늘의 비평’ 동인은 ‘구모룡, 남송우, 박남훈, 이상금, 정해조, 정형철, 황국명’이며, 편집인은 남송우가 맡았다.

특히 이를 견인했던 비평이 “지역문학에 대한 각성과 조명”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그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한계를 성찰한다. 가령 민병욱은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사회적 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비평이 앞서간 지역문학론은 지역의 문학과 “행복한 결합을 상설”했다고 진단하는데, 박태일은 비평과 창작의 이러한 괴리의 원인을 지역문학에 대한 비평의 단속적이고 빈약한 관심에서 찾기도 한다. 그는 80년대 무크운동을 선도한 비평이 “문단의 재편성”에 정향하면서 정작 “작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산의 비평가들 역시 지역의 작가나 작품에 대한 비평적 관심보다는 “자기 비평작업의 확대 혹은 전반적인 비평권 확보”에 진력함으로써 외려 “중앙에 매여 있”었던 상황은 아닌지 반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자성을 통해 이들은 80년대 지역문화운동의 “시대적 적합성”이 소진되었으며, 그러므로 90년대에 적합한 지역문화운동의 재창안이 요구되고 이를 수행할 새로운 세대의 발굴과 매체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지역문화운동’과 ‘지역주의’의 재발명을 요청하는 논의들은 1990년대 이후 부산의 평단에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서울 중심주의에 대항한 초창기 ‘지방주의’에서 “자기의 문제보다 타자의 문제를 강조한 일면”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을 함께 인식하자는 변증법적 지역주의”를 제안했던 구모룡은 다시 ‘비판적 지역주의’로의 이행을 촉구한다. 그는 일국적 차원의 논리로 등장한 ‘지방주의’나 ‘변증법적 지역주의’와 달리 “전지구적 시스템과의 연관에서 지역을 인식”하는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localism)를 “중심부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창안하고 실천하는” 노력이라 정의하며,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입장에서 지역문학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¹²⁷⁾

127) 『오늘의 비평과 지역문학의 전망』, 『오늘의문예비평』 1호, 18-41쪽. 남송우가 사회를 맡은 이 좌담에는 평론가 민병욱, 소설가 조갑상, 시인 박태일이 참석했다.

128) 구모룡, 『주변부 지역문학의 위상』, 『오늘의문예비평』 50호, 2003년 가을호,

황국명 역시 ‘비판적 지역주의’를 강조했는데, 그는 “저항과 참여”를 그 성격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비판적 지역주의란 “지배담론으로서의 지역주의”, 즉 “국가와 도시 엘리트”,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에 의해서 지역적인 것을 “보편적 일반적 근대적인 것과 대립하는, 편협하고 낙후된 지방근성”으로 주조한 중심부의 자기이해적 지역주의를 해체하는 것인 한편, “문화지역주의” 곧 “지역의 역사적 토대를 삭제”하고 “장소의 허구적 특질을 강화”하면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배타적 “오리엔탈리즘”을 조장하는 자본과 결탁한 지역주의와도 대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저항을 수행하는 비판적 지역주의는 또한 “지역 내부의 갈등을 간과하거나 지역적 삶의 근거 없는 순진성을 강조하거나 터무니없는 향토애에 매몰”되는 것을 부단히 경계하면서 “지역이라는 프레임에 근거해 한국근대화 과정”을 해명하고 “지역차원의 경험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인식을 “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입의 지역주의이기도 하다.¹²⁹⁾

구모룡과 황국명, 혹은 『오문비』로 합류한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제출한 이 ‘비판적 지역주의’란 지역을 폐제해온 중앙을 비판하는 동시에 모순을 간과해온 지역을 성찰하는 것이며, 이 같은 비판/성찰의 수행을 통해 지역을 소외된 지방/변방이 아닌 국가와 자본이 공조한 이분법적 근대체제를 기각하는 불화의 거점이자 “제3의 시각”¹³⁰⁾을 발의하는 생성의 무대로 다시 구성하려는 지역문화운동의 이념일 것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이들이 발동한 ‘비판적 지역주의’를 우리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사유를 빌어 ‘이차적 저항’의 논리로 독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서양에 대한 동양의 저항을 성찰했던 다케우치 요시미가 서양에

20-28쪽.

129) 황국명, 「부산소설의 지리적 상상력」, 『지역소설과 상상력』, 신생, 2014, 13-21쪽.

130) 『오문비와 30년-[선배 편집위원 설문조사] 굳은살과 새살』, 『오늘의문예비평』 120호, 2021년 봄호, 17쪽. 인용 부분은 구모룡이 언급한 것이다.

대한 패배에 저항하는 일차적 저항을 넘어 동양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 혹은 패배를 망각하는 것에 대한”¹³¹⁾ “이차적 저항”을 감행할 때 진정한 근대/서양 극복이 가능하리라 상상했듯이, 80년대를 통과해온 지역의 비평주체들 역시 “상대와 더불어 자신도 와해시키고자 하는”¹³²⁾ 이차적 저항을 통해 탈근대/탈식민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지역문화운동을 다시 구성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80년대 “지역문학의 좌절”¹³³⁾에 대한 이들의 반성이나, 계간지시대의 도래 이후 “중심부의 문화자본이 집중되고 문화권력이 강화되면서 지역은 다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지역문학론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¹³⁴⁾는 성찰은 좌절의 발화라기보다 외려 다른 저항을 수행하려는 결의의 발화로 독해된다.

이 다른/이차적 저항이란 그러나 서울/지방, 중심/주변을 위계화하는 불평등한 분배를 가시화하고, 지역(성)을 삭제해온 추상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역모순’을 은폐해온 ‘민족문학’을 심문하는 일차적 저항을 통해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며 그 최초의 저항 속에 이미 잠재되었던 것이 아닐까. 지역문학들의 평등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민족문학을 열망”했던 80년대 부산발 지역문학운동의 ‘지방주의’란 이차적 저항으로의 이행을 내재한 일차적 저항이며, “발견되고 감각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의 타자화”를 보이고 들리게 한 “지역감수성”¹³⁵⁾의 발동이었는지 모른다. 지역에 대한 감각을 재분할하는 이 낮은 감수성을 가동하며 ‘지역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 민족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을 상상했던 80년대 부산발 지역문학운동은 그러나 “민족주의-남성-엘리트”¹³⁶⁾ 그리고 ‘서울’ 중심의 문학사가 주조한 ‘80년대적인 것’에

131) 다케우치 요시미 지음, 윤여일 옮김,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2』, 휴머니스트, 2011, 225쪽.

132) 윤여일,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375쪽.

133) 『오늘의 비평과 지역문학의 전망』, 앞의 책, 32쪽.

134) 구모룡, 『주변부 지역문학의 위상』, 23쪽.

135) 손남훈, 『지역이라는 타자와 지역감수성』, 『창작과비평』, 2018. 12, 404쪽.

온전히 기억/기록되지 못했다. 이 글은 이 편파적인 문학사의 망각을 횡단하고 80년대 지역발 무크운동이 구성한 80년대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재독하려는 실천적 시론이다.

136) 천정환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8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지평』 1집~6집

『전망』 1집~5집

『오늘의문예비평』 1호, 120호

2. 2차 자료

고봉준, 「80년대 문학의 전사(前史), 포스트-유신체제 문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

구모룡, 「제3세대의 문학이념」, 『젊은 세대의 문학』, 시로, 1986.

———, 「부산문학비평사 : 근대성의 경험」,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 「주변부 지역문학의 위상」, 『오늘의문예비평』 50호, 2003년 가을호, 20-28쪽.

김대성, 「제도 혹은 정상화와 지역문학의 역학-‘피난문단’과 ‘무크지 시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35-62쪽.

김도연, 「장르 확산을 위하여」, 『80년대 대표평론선 1』, 지양사, 1985.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제37호, 한국시학회, 2013, 83-104쪽.

———, 「무크지 출현의 배경과 맥락 -『마산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14, 323-356쪽.

김선미,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363-396쪽.

김용규, 「근대적 지식구조의 변화와 문화생태학의 복원」, 『혼종문화론』,

소명출판, 2013.

김용규, 「아래로부터의 세계문학: 카자노바의 『세계문학공화국』을 넘어」,
『비평과이론』 제19권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4, 1-41쪽.

김 원,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 『한국학연구』 제3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9-49쪽.

김윤식, 「무크의 「지방성」에 대하여-「지평」, 「전망」, 「언어의 세계」, 『한
국일보』, 1986. 3. 4.

김정현, 「자문화중심주의와 해석학적 타자 이해」, 『해석학연구』 제34집,
한국해석학회, 2014, 103-132쪽.

김정환 · 박명윤 · 이은봉 · 하영권,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실천문학』
4호, 1984.

김정환 · 이인성 · 강동호, 「80년대 문학운동의 맥락 2-다시, 80년대 문학
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문학과사회』32(1), 2019, 164-
186쪽.

김준오, 「무크운동의 장르관-80년대 무크」,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
성사, 2000.

다케우치 요시미 지음, 윤여일 옮김,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2』, 휴머니
스트, 2011.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지음, 김택현 · 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그린비, 2014.

민병욱, 「지방주의의 실체 1」, 『민주주의 지향과 문학』, 시로, 1985.

_____, 「민병욱 교수의 ‘다시 문학청년으로’ <9> 무크지 『지평』의 발간
전후下」, 웹진 『인저리타임』, 2018. 3. 7.

_____, 「민병욱 교수의 ‘다시 문학청년으로’ <8> 무크지 『지평』의 발간
전후上」, 웹진 『인저리타임』, 2018. 2. 19.

민병욱 · 황국명 · 백하현, 『「문학과 지성」 비판』, 도서출판 지평, 1987.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민중 · 민족문학의 양상-1970,80년대의 문학」,

- 『새민족문학사강좌 2』, 창비, 2009.
- 박태순 · 이명원, 「소설가 박태순에게 들어보는 1980년대와 『실천문학』, 그리고 문학운동」, 『실천문학』 105호, 2012, 104-133쪽.
- 박치완, 「‘유럽의 지방화’ 논제와 계몽주의적 보편주의 비판」, 『현상학과 현대철학』 84, 한국현상학회, 2020, 109-143쪽.
-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창작과비평사, 1984.
- _____,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 손남훈, 「지역이라는 타자와 지역감수성」, 『창작과비평』 통권182호, 2018. 12, 402-415쪽.
- 원재길, 「80년대 문학 종합 무크지의 실태」, 『문학예술』 통권124호, 1989.
- 윤여일,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 이동순, 「1980년대 광주 지역문예운동의 특수성」, 『상허학보』 52집, 상허학회, 2018, 145-170쪽.
- 이용우, 「무크지 제領域 다져간다」, 『동아일보』, 1985. 2. 18.
- 임세진, 문학(성)의 민주화와 민중 언어의 실천-대전지역 무크지 『삶의 문학』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9집, 겨레어문학회, 2017, 131-164쪽.
- _____,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 『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323-357쪽.
- 임시현, 「1980년대 광주지역 무크지의 실제」, 『한국언어문학』 99집, 한국언어문학회, 2016, 361-385쪽.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3.

- 정승안, 「19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과 부림사건의 현재적 의미」, 『항도 부산』40,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20, 77-101쪽.
- 차성환, 「양서조합운동의 재조명 1」,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가을, 68-86쪽.
-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389-416쪽.
- 천정환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 채광석, 「민중·민족문학의 확대심화로서의 지방문학운동」, 『채광석전집Ⅳ 민중적 민족문학론』, 풀빛, 1989.
- 최학립, 「1980~2000년대 부산 문학잡지 풍경」, 『작가와사회』 통권74호, 2019년 봄, 108-132쪽.
-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331-377쪽.
- , 「부산소설의 지리적 상상력」, 『지역소설과 상상력』, 신생, 2014.

<Abstract>

Cultural Politics of Regional Literary
Movements in the 1980s
- Focused on Magazines *Horizon* and *Prospect*

Kim, Kyung-Yeon*

This paper comprehends the cultural politics of regional literary movements driven by the magazine movement in Busan in the 1980s, focusing on *Horizon* and *Prospect*. In the 1980s, various magazines like *Horizon* (1983), *Prospect* (1984), *Natives* (1987), *Literature and Practice* (1987), and *Literature and Reality* (1989) appeared in Busan. These magazines functioned as a dwelling of struggles for consciousness resisting the violent political circumstance of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became the foothold of cultural struggles that triggered an introspection of the region, developed topographic imaginations, and confronted the authoritative literary system biased toward Seoul (center). In particular, *Horizon* and *Prospect* were the origins of the magazine movement of Busan and the avant-garde mediums that drove 'regional cultural movements' with a practical strategy while executing reflective disbandment of political and cultural hegemony. The magazine movement of Busan put up the banners of "pioneering inroads into regional literature," "regionalism of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as regional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as Korean literature." At the same time, the magazine

* Pusan National University

movement clarified its commitment to reappropriate the substitute awareness about the partial literary system and reinvent regions and literature. This movement was decisively more intense than the trends of magazines in other regions in the 1980s that insisted on the democratization of literature and the formation of local autonomous cultures. *Horizon* and *Prospect* were at the center of these regional cultural movements started from Busan. The critical subjects of *Horizon* and *Prospect* were at the core of cultural and political plans to specify the power relations latent in generality and specificity, uncover ‘regional literature of Seoul’ that had been dominating as the generality, overcome the marginality of regional literature of Busan, and reorganize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generality and specificity into an equal system of ‘multiple generalities.’ This paper attempted to reread ‘regionalism’ as a method devised by the magazine movement of Busan in the 1980s, led by *Horizon* and *Prospect*, and explore cultural politics of regional literary movements in the 1980s that started from Busan by paying attention to the critical practice of *Horizon* and *Prospect*.

Key Words: In the 1980s, Mook, Busan, “Horizon”, “Prospect”, regionalism, regional literary movements, dialectical criticism, criticism of criticism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3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